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과  
영향 요인 분석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김 지 은

#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과 영향 요인 분석

지도교수 정 동 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김 지 은

김지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위 원 장 \_\_\_\_\_ 신 정 철 (인)

부위원장 \_\_\_\_\_ 변 수 용 (인)

위 원 \_\_\_\_\_ 정 동 욱 (인)

## 국문초록

최근 계층 간 교육격차의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교육격차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학업탄력성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학생이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학업탄력성을 지닌 학생의 비율이 국내에서 급감하였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면서, 계층 간 교육격차의 확대 및 교육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급에서 학업탄력적인 학생의 수와 비율을 확인하여 그 변화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학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탄력성을 새롭게 생성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학업탄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학생 및 학교 특성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업탄력적인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교육중단연구(GEPS)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술통계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2012년-2014년의 3개년에 걸쳐 동일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탄력성

이 있는 학생의 규모를 성별, 주요 교과별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하여 2012년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학업탄력성이 없었던 학생을 대상으로, 6학년이 되어 새롭게 학업탄력성이 생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통하여 2012년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학업탄력성이 있었던 학생을 대상으로, 6학년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학업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학업탄력적 학생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을 주요 교과목인 국어·수학·영어 과목별과 학생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는 학업탄력적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수학 교과에서는 학업탄력적 학생 중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러한 양상은 3개년에 걸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둘째, 초등학생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으로는 SES 지수, 자아개념(관계지향), 수업이해도, 독서활동, 교육포부 등이, 학교특성으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여부가 학업탄력성 생성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으로 여가 시간(친구), 비행빈도, 수업이해도 등이, 학교특성으로는 교사의 효능감이 학업탄력성 유지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고착화되어오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이 감소하

였고, 교과목과 학생 성별에 따라 그 양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교급에서 학업탄력적 학생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초등학생이 학업탄력성을 생성시키는 요인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독서활동 활성화에 대한 환경 조성, 학생의 수업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사의 노력 향상 및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의 확대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학생의 바람직한 여가 시간 선용 방법의 안내 및 지도, 학생의 비행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생활지도 및 교과연계 수업 강화, 수업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사 및 학교의 노력, 교사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 전문성 향상 관련 연수 확대 등을 제언하는 바이다.

**주요어** : 학업탄력성, 학업탄력성 영향 요인, 초등학교, 학업성취, 사회경제적배경, 이항 로지스틱 모형

**학 번** : 2017-20054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문제 .....	3
제 3 절 연구의 의의 .....	5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	8
제 1 절 교육격차 .....	8
제 2 절 학업탄력성 .....	10
1. 학업탄력성의 정의 .....	10
2. 선행연구 분석 .....	11
3. 개인적 요인과 학업탄력성 .....	13
4. 환경적 요인과 학업탄력성 .....	15
제 3 장 연구방법 .....	16
제 1 절 분석틀 .....	16
제 2 절 분석자료 및 대상 .....	17
제 3 절 분석변수 .....	18
제 4 절 분석방법 .....	22
제 4 장 분석 결과 .....	25
제 1 절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 .....	25
1. 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지수와 학업성취 .....	25
2. 유형별 학업탄력적 학생 수의 변화 양상 .....	29



3. 초등학생 학업탄력성의 종단적 변화 양상 .....	34
<b>제 2 절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b>	
<b>요인 분석</b> .....	<b>37</b>
1. 기술통계 .....	37
2. 초등학교 6학년 시기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 .....	40
<b>제 3 절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b>	
<b>요인 분석</b> .....	<b>42</b>
1. 기술통계 .....	42
2. 초등학교 6학년 시기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 .....	45
<b>제 5 장 논의</b> .....	<b>48</b>
<b>제 1 절 초등학생의 교육격차와 학업탄력성 변화</b>	
양상 .....	48
<b>제 2 절 초등학생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b>	
학생 및 학교 특성 .....	50
<b>제 3 절 초등학생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b>	
학생 및 학교 특성 .....	52
<b>제 4 절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생성 및 유지에</b>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	53
<b>제 6 장 결론 및 제언</b> .....	<b>55</b>
<b>참고문헌</b> .....	<b>59</b>
<b>부    록</b> .....	<b>67</b>
<b>Abstract</b> .....	<b>69</b>

## 표 목 차

[표 3-1] 주요 분석 변수 및 설명 .....	18
[표 4-1] 2012년 SES 지수와 학업성취 분위별 학생 수 .....	25
[표 4-2] 2013년 SES 지수와 학업성취 분위별 학생 수 .....	26
[표 4-3] 2014년 SES 지수와 학업성취 분위별 학생 수 .....	27
[표 4-4] 2012년-2014년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 .....	29
[표 4-5] 2012년-2014년 학생 성별과 학업탄력적 학생의 수과 비율 .....	31
[표 4-6] 2012년-2014년 주요 교과별 학업탄력적 학생의 수과 비율 .....	32
[표 4-7] 2012년-2014년 주요 교과 및 학생 성별과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 .....	33
[표 4-8] 2012년-2014년 동일 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와 학생 수 및 비율 .....	35
[표 4-9] 2012년-2014년 학생 학업탄력성 변화에 따른 집단구분 .....	36
[표 4-10] 초6 시기 학업탄력성 생성 요인 기술통계 .....	38
[표 4-11] 초4-초6 시기 학업탄력성 생성 요인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40
[표 4-12] 초6 시기 학업탄력성 유지 요인 기술통계 .....	43
[표 4-13] 초4-초6 시기 학업탄력성 유지 요인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46

## 그 립 목 차

[그림 3-1]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틀 .....	16
[그림 3-2]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틀 .....	17
[그림 4-1] 2012년-2014년 학생의 가정배경 지수와 학업 성취 .....	28
[그림 4-2] 2012년-2014년 학업탄력적 학생 수 변화 .....	30
[그림 4-3] 2012년-2014년 학업탄력적 학생 비율 변화 .....	30

## 부 록 목 차

[부록 1] 전체 초등학생 학업탄력성 생성에 대한 영향 요인 기술통계 .....	67
[부록 2] 전체 초등학생 학업탄력성 유지에 대한 영향 요인 기술통계 .....	68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격차는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분야이다. 학생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의 차이가 학생 학업성취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향후 개인의 대학진학 혹은 노동시장 성과에서의 격차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격차 감소는 꾸준히 연구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갖는다.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학계에서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2009)의 학력향상 중점학교 정책 실시 및 학교 및 지역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박주형, 2011; 허은정, 신철균, 정지선, 2012, 재인용).

교육격차는 여러 지표를 통해 연구되어왔다. 학생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생 학업성취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후 평균 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등의 교육격차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박현정, 이진실, 2015).

최근 OECD(2010)에서는 교육격차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학업탄력성(academic resilie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학생 수준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학업탄력성은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한 학생이 학교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OECD(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업탄력적(academically resilient) 학생 비율이 급감했다<sup>1)</sup>. 이러한 학업탄력적 학생의 비율 감소는 저소득층 학생이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생의 학업탄력성 저하는 계층간 교육격차를 확대시켜 기회불평등 및 부의 대물림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

1) 가정배경이 어려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업탄력적인 학생 비율이 2006년 52.7%에서 2015년 36.7%로 16%포인트로 급격히 감소하였다(아시아경제, 2018.02.05.).

따라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학업탄력적인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가 학업탄력적인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 시기로 주목되어야 한다. 학업탄력적 학생의 양성 시기로 초등학교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격차 및 교육격차의 심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교육격차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렇게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은 계층에 따라 상층 집단의 수준이 상승하고 하층 집단의 수준이 하락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다(류방란, 김성식, 2007). 또한 교육격차의 해소는 초등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정이 어려워지기(곽현석, 2018)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에 학업탄력적인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격차를 감소시킴으로써 이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의 심화를 줄일 수 있다.

학업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도 시도되었다. 최근 연구결과로 박현정, 이진실, 석유미(2016)는 중학교에서의 학업탄력성 추이와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수준에서의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특성에서 교사의 성취압력, 학교수업분위기, 안전한 학교 풍토, 학생1인당 학교예산 등이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곽현석(2018)은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개인특성에 해당하는 수업이해도, 여가활동, 행동조절전략, 부모의 자녀 기대학력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등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는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에 있어 주로 중·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박현정, 이진실, 석유미, 2016; 박현정, 이진실, 2015; 구경호, 유순화, 2014).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업탄력성의 영향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는 경향 속에서, 곽현석(2018)의 연구는 초등학교급에서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곽현석(2018)의 연구는 1개년도의 횡단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학업탄력성은 학생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해에 걸쳐 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탄력성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업탄력성의 변화 양상과 함께 학업탄력성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과 학업탄력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등학교에서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을 파악하고, 동일한 학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탄력성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즉 시간 흐름에 따른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초등학교에서의 학생특성 요인과 학교특성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학업탄력적인 학생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학업탄력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업탄력적 학생의 수와 비율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와 6학년 시기의 학업탄력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학업탄력성 생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에서 실증적으로 밝혀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2012년-2014년의 3년 동안 초등학생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에 따른 학생 학업성취에서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2012년-2014년의 3년 동안 초등학교에서의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에서 전체적인 양상과 주요 교과 및 학생 성별에 따른 변화 양상의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동일한 초등학생이 4학년에서 6학년이 되어감에 따라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 파악에 우선하여, 학생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지수에 따라 학업성취정도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학생의 가정배경에 따라 학생 학업성취에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며, 특히 가정배경 지수가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의 학업성취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하여 본다. 이후 초등학교 학생 중 학업탄력적 학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학생의 성별, 국어·수학·영어 과목별로 유형을 나누어 학업탄력적 학생의 수와 비율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같은 학생이 4학년 시기에서 이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5학년과 6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 여부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변화 양상에 따라 학생을 여러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별로 학생 수와 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활용한다.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은 무엇인가?**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새롭게 생성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학업탄력성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시기에 학업탄력성을 새롭게 획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문제 3]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은 무엇인가?**

학업탄력적 학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업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학생이 학년이 올라가 6학년이 되는 시기에도 학업탄력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주목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이러한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 및 학교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제 3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단연구자료를 분석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초등학생 학업탄력성의 변화 양상을 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의 3개년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6학년이 되는 2014년의 시기까지 학업탄력성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에 밝혀진 초등학생 학업탄력성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곽현석, 2018)는 1개년도의 횡단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된 횡단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생 학업탄력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시기 학업탄력성을 가질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과 학교특성 변수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학업탄력성을 획득하지 못했던 학생 중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이 새롭게 생성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요인과 학교 요인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학업탄력적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도 학업탄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 및 학교특성을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다.

셋째, 초등학교 시기에 주목하여, 학업탄력적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 초등학교 특성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다. 교육격차는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확대되므로(류방란, 김성식, 2007), 초등학교급에서의 교육격차감소가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학업탄력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초등학교 특성 요인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새롭게 생성시키고 기존의 학업탄력적 학생은 지속적으로 학업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제안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급에서의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초등학교 특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남기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의 범위에서의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교육중단연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분석 가능한 경기교육중단연구 자료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3개년에 걸쳐 초등학생이 4학년에서 6학년이 되어가는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업탄력성 유무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학업탄력성 유무는 고려되지 못하였다. 초등학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4학년이 5학년이 되면서 학업탄력성의 변화, 5학년이 6학년이 되면서 학업탄력성의 변화에 대한 과정을 고려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셋째, 분석범위와 관련하여 분석의 대상과 지역 측면에서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되어 중·고등학교 등에 해당하는 다른 학교급에서의 학생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된 자료로, 연구결과를 경기 이외 지역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넷째,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식적·정의적·신체적 측면의 통합적 발달로 볼 때, 학업탄력성의 개념이 지식적 측면과 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학업탄력성은 학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과제를 잘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초등교육 목적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학업탄력성의 개념이 주로 학생의 전인적 발달 중 학습에 대한 초점을 둔다는 것이 제한적이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교육격차

학업탄력성은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교육격차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우선 교육격차라는 용어는 학교 환경의 차이, 지역 환경의 차이, 사교육을 받는 정도의 차이, 학부 모지원의 차이, 학업성취의 차이 등과 같이 교육 관련 다양한 형태의 차이를 담는 표현으로 이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상이하다(김양분, 이재경, 임현정, 신혜숙, 2010). 이혜영, 강태중(2004)은 교육격차를 교육 접근 기회의 격차,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격차,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렇게 교육격차를 포괄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강영혜, 김양분, 류한구, 김재철, 강태중, 2004; 김영철, 2003). 한편 교육격차는 교육불평등이나 학력격차와 같은 유사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나, 엄밀하게 교육격차는 교육불평등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사회 및 학교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의 교육의 투입, 과정, 결과 측면을 함께 고려한 관점이다(강영혜 외, 2004; 정철영, 정진화, 오창환, 2011).

교육격차와 관련하여 교육격차의 실태 및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한국사회의 교육격차가 심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근(2005)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임을 주장하였다. 박현정, 정동욱, 이진실, 박민호, 조성경(2013)에 따르면 교육격차 실태분석 결과, 학교 평균 학업성취도의 표준편차에 대한 학교 간 격차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명숙(2013)은 서울시 중학교의 단위학교 및 자치구 수준에서의 교육격차를 분석하고, 투입보다 그 결과에서 교육격차가 크다는 결과

와 함께 학교 및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보완책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우명숙(2013)의 연구결과는 하봉운(2004)이 밝힌 것처럼 지역 간 교육격차가 크다는 결과와 비슷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교육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배경이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되었다. Philips et al(1998)은 가정배경의 차이가 성취도 격차의 전체를 설명한다고 보았다. 오욱환(2008)은 교육격차가 가족의 경제력 즉 가정 계층에 의하여 상당히 좌우된다고 하였다. 변수용, 김경근(2010)은 가정배경 변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고등교육에서의 교육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위정(2012)은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박현정, 정동욱, 이진실, 박민호, 조성경(2013)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한 학생수준 변수가 교육격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학교 교육이 가정배경에 따른 학생 간 성취도 격차를 좁힌다는 것은 아직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Rothstein, 2004; Carnoy et al, 2005). 정철영, 정진화, 오창환(2011)은 학교배경과 교원의 수준이 교육성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나, 해가 지날수록 영향을 주는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허은정, 신철균, 정지선(2012)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격차 실태 및 특성 분석을 통하여, 학교재정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를 확인하였다. 김경년, 박정신(2014)은 학교의 교육복지 특별학교 지정이 학교 간 학력격차에서 영어 과목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수학 과목에서는 학습부진아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격차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가정배경과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어왔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논의되어 오고 있다(김경근, 연보라, 장희원, 2014).

## 제 2 절 학업탄력성(Academic Resilience)

### 1. 학업탄력성의 정의

탄력성의 어원은 라틴어 ‘resilire’에서 유래되어, ‘to leap back’ 즉 ‘다시 돌아보는 경향’ 또는 ‘탄성’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김수안, 2014). 탄력성은 ‘개인이 속한 상황 속에서 위협이나 위기,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반응하여 이를 극복하고 성공해 내는 개인의 가변적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분희, 김누리, 2010). 특히 탄력성은 변화, 어려움, 불행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는 개념과는 다르다(전인경, 2009). 탄력성에 대한 다수 정의가 있어왔으나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개념은 ‘역경’과 ‘긍정적 적응’이다(김수안, 2014).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학업탄력성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을 종합하여볼 때 학업탄력성이란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을 잘 수행해나가는 능력이다. 구체적으로 Alva(1991)는 학업탄력성이 높은 학생을 학업중단이나 학업위기에서도 높은 성취동기를 바탕으로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학생이라고 보았다. 또한 Hernandez(1993)는 역경 상황에서 학업성취가 높고, 학교생활에 높은 동기를 가지며, 또래와 잘 어울리는 것을 학업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업탄력성이란 역경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서 학업적 성취를 보이며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는 능력이라 정의한다(박현선, 1998; 김누리, 2008; 오현경, 김성희, 2012). 즉 학업탄력성은 학생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학업과제를 잘 해결해나가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Martin, 2003; McTigue, Washburn, Liew, 2009; Zimmerman, 2003; 정숙희, 이은수, 2015).

한편 학업탄력성은 수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OECD(2010)에서는 학업탄력성의 개념을 ‘불리한 가정환경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예상되는 성취도와 실제 성취도 사이의 차이인 성취도 잔차를 구하여, 가정배경이 낮은 수준(하위 25%)의 학생들 가운데 성취도 잔차가 상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학업탄력적인 학생으로 정의했다(박현정, 이진실, 2015; OECD, 2016; OECD, 2013; OECD, 2010). 한편 OECD(2010)에서 제시하는 학업탄력성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하여 구분되기 때문에, 이외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제한적이다(박현정, 이진실, 2015).

## 2. 선행연구 분석

학업탄력성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크게 학업탄력성의 구성요인,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학업탄력성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외 학업탄력성 관련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먼저 학업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로 Borman, Overman(2004)은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탄력성의 하위 요인으로 학업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내적통제위치, 수학과목의 효율성,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긍정적 자아존중감 등을 제시하였다. Martin & Marsh(2009)는 학업탄력성의 요인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심리적 요인, 학교관련 요인, 가족 또는 동료관련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학업탄력성의 세 가지 요인과 관련하여 연구된 바에 따르면, 심리적 요인으로는 동기, 효능, 통제감, 목적의식 등이, 학교와 관련한 요인으로 학급에 대한 참여, 특별활동, 교과참여, 교육적 열의, 학교 흥미, 학교에 대한 가치, 교사와의 관계가, 가족 및 동료 요인으로 성인·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친구와 정보공유 및 교육에의 참여, 친사회적 조직과 연계 등이 있다(Alva, 1991; Catterall, 1998; Finn & Rock, 1997; Gonzalez & Padilla, 1997; Masten & Coatsworth, 1998; Waxman, Huang, & Padron, 1997; Wayman, 2002). 한편 국내에서는 박진영, 김누리(2009)는 성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탄력성을 연구한 결과 하위 구성요소로 종교지지, 자기통제, 학습조절, 또래지지, 계획주도를

확인하였다. 박현선(1998)은 학업탄력성 하위 구성요인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규범 준수 등을 설정하였다. 오현경(2014)은 청소년의 학업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업탄력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학생의 열망, 문제해결력, 동료관계, 가족지지, 학업적 환경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자기조절학습전략, 특히 자기조절학습전략 중 정보의 조직과 변형, 자기보상 및 처벌은 학업성취와 학업탄력성을 높이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Nota, Soresi, & Zimmerman, 2005). Gonzalez, Padilla(1997)는 소수인종 출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친구, 가족, 교사 등의 역할, 지원 원천으로서 문화적 정체감, 학교환경 등이 학업탄력성을 강화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했다(Martin, 2002; Gizir & Aydin, 2009; Waxman et. al., 1997; 구경호, 유순화, 2014, 재인용).

그리고 학업탄력성 척도 개발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연구로 박진영, 김누리(2009)는 성인대학생용 학업탄력성 척도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후 박분희, 김누리(2010)는 아동 즉 초등학생용 학업탄력성을 측정하는 척도에 대한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청소년 대상의 학업탄력성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오현경, 김성희, 2012)도 이어졌다. 또한 최근 이명숙(2016)은 초등학생용 학업탄력성 척도를 인지적 학업탄력성, 정서적 학업탄력성, 수행적 학업탄력성의 관점에서 학업탄력성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수행했다.

이외에도 학업탄력성에 관하여 다음의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학업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는 학업적 위기와 어려움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오현경, 2014). 김홍희, 한기순(2015)은 영재집단에서 학업탄력성이 낮은 집단이 학업탄력성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학교적응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누리(2008)는 대학생 대상의 학업탄력성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학업탄력성의 하위 구성요인으로 긍정적 태도, 자기통제, 학습조절, 과제책임감, 또래지지, 부모지지 등을 추출하고, 학업탄력성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여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하위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박현정과 이진실(2015)은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의 고교 및 대학생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연구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볼 때, 중학교급 이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많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현정, 이진실, 2015)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현선, 1998; 이상준, 2006; Gonzalez & Padilla, 1997; Borman & Overman, 2004)와 대학생 대상의 연구(김누리, 2008; 박진영, 김누리, 2009)가 진행되어왔다. 또한 중학교에서의 학업탄력성 추이와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수준 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박현정, 이진실, 석유미, 2016). 박분희, 김누리(2010)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탄력성 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한편 곽현석(2018)은 초등학생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개인특성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초등학교급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 3. 개인적 요인과 학업탄력성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학생의 개인특성, 학습과 관련된 특성, 학습과 관련성이 있는 정의적 측면의 특성, 학생의 생활 특성, 학생의 정서 및 심리적 측면과 관련된 요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외에서 수행된 개인적 요인에 관한 연구로 밝혀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OECD(2011)는 읽기(reading)에서 학업탄력적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 비율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학생의 성별이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 특성 중 학습과 관련하여서는 Nota, Soresi, & Zimmerman(2005)은 자기



조절학습전략이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조절학습전략, 특히 자기조절학습전략 중 정보의 조직과 변형, 자기보상 및 처벌은 학업성취와 학업탄력성을 높이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습특성과 관련하여 정의적 측면에서는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이 학업탄력성을 높이는 데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여러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 있다(Gizir & Aydin, 2009; Martin, 2002; Waxman et. al., 1997;). 그리고 학생의 정의적 측면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Alva, 1991; Borman & Overman, 2004). 또한 Gonzalez, Padilla(1997)는 소수인종 출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학생의 문화적 정체감이 학업탄력성을 강화시켰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 개인의 학습과 관련하여서는 곽현석(201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에서 공통적으로 수업이해도가 학업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학생의 학습에서의 정의적 측면과 관련하여 구경호, 유순화(2014)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학습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박현정, 이진실, 석유미(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외재적 동기가 낮을수록, 학습전략에서 인지전략이나 정교화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단순암기전략을 적게 사용할수록, 수업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생이 학업탄력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구경호, 김석우(2014)는 학업스트레스가 학업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업탄력성 증진을 위해 학생이 가진 개인 내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대한 탐색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학생의 생활특성과 관련하여 여가활동, 행동조절전략 등이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현석, 2018).

#### 4. 환경적 요인과 학업탄력성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학생의 부모를 포함하는 가정배경과 교사 및 학교의 특성을 포함하는 학교 환경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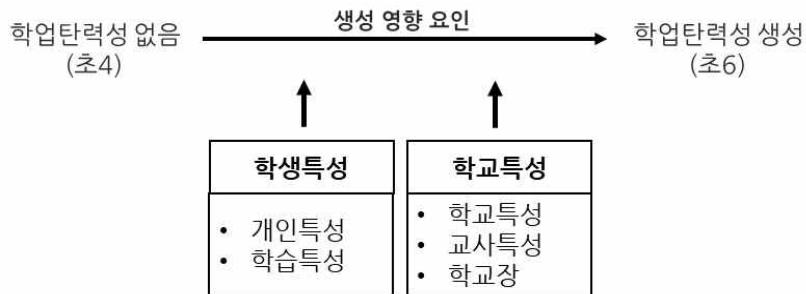
먼저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가정배경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이 학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연구에서 광현석(2018)은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학력수준을 학업탄력성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보았다. 노지숙, 여상인(2016)은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통해, 부모의 애정적이고 성취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탄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다음으로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학교의 환경과 관련하여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Gonzalez, Padilla(1997)는 학교 환경이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국내 최근 연구결과로 박현정, 이진실, 석유미(2016)는 중학교에서의 학업탄력성 추이와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수준에서의 요인을 탐색하였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특성에서 교사의 성취압력, 학교수업분위기, 안전한 학교풍토, 학생1인당 학교예산 등이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성취압력이 높고, 학교수업분위기가 좋을수록, 학교풍토가 안전할수록, 학생1인당 학교예산이 많을수록 학생이 학업탄력성이 있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현석(2018)은 학교 소재지 및 교사의 학생특성 파악 정도가 학생의 학업탄력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밝혔는데, 읍면 지역보다는 특별시 소재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영향은 주요 교과 중 특정 과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 제 3 장 연구 방법

### 제 1 절 분석틀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학업탄력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학업탄력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문제 2에서는 [그림 3-1]과 같은 분석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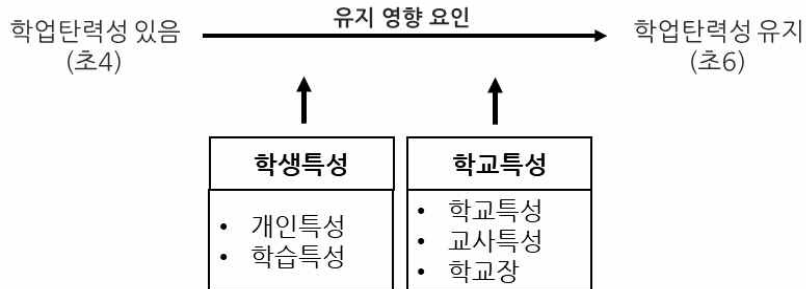


[그림 3-1]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틀

[그림 3-1]의 분석틀을 통해 학업탄력성이 없었던 학생이 학업탄력성을 새롭게 획득하게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즉 학업탄력성 생성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써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학업탄력성이 없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6학년 시기에 새롭게 학업탄력성을 획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으로 개인특성, 학습특성, 생활특성을 중심으로 영향 요인을 탐색한다. 또한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으로는 학교, 교사, 그리고 학교장과 관련된 특성을 중심으로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3에서는 [그림 3-2]와 같은 분석틀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림 3-2]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틀

[그림 3-2]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학업탄력적 학생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업탄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와 마찬가지로 학생특성 및 학교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중심으로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 제 2 절 분석자료 및 대상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종단연구 1차-3차 자료를 활용한다. 해당 자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학생이 4학년에서 6학년이 될 때까지 매년 반복 측정된 패널자료로, 동일 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과 학업탄력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1차년도인 2012년에는 경기도 시군을 층(비례)으로 하여 층화군집표집으로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당 2개 학급을 표집하여 패널학생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학업탄력성을 측정하는데 활용되는 가정배경 지수와 학업성취에 대한 결측이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 2012년(1차년도)-2014년(3차년도)의 총 3개년 학업성취 및 가

정배경 지수에 모두 결측이 없는 85개교 초등학생 4학년 2785명이 분석 대상이다. 전체 2785명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학업탄력적 학생의 수와 비율을 구하여, 3개년 동안의 학업탄력적 학생 규모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또한 학생 성별 및 주요 교과인 국어·영어·수학 과목에 따른 학업탄력적 학생의 수와 비율의 변화 양상도 함께 파악한다. 이에 더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탄력성 여부를 추적하여,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에 따라 학생을 여러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학생 수를 확인한다.

이후 학업탄력성의 생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와 초등학교 6학년 시기를 중심으로 학업탄력성 변화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85개교 초등학생 2785명 중 579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579명은 사회경제적배경 지수가 하위 25%에 속하는 학생 가운데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학업탄력성 여부가 구분가능한 학생이다. 또한 85개교에서 설문에 참여한 교사 452명과 학교장 85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교사의 경우 해당 학교 교사들의 평균 값을 구하여 학교 수준으로 활용하였다.

### 제 3 절 분석변수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주요 관련 변수는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주요 분석 변수 및 설명(연구문제2, 3)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 변수	학업탄력성 여부 학업탄력성 있음(1), 학업탄력성 없음(0)
성별	남학생(1), 여학생(0)

학생 특성	개인	SES 지수	부 학력, 모 학력,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을 각각 표준화시킨 값의 평균	
	특성	로그 여가 시간 (친구)	하루 평균 방과 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분)의 로그값	
		자아개념 (관계지향)	관계지향적 자아개념 관련 5개 문항 평균	
	학습 특성	로그 비행빈도	연간 비행빈도 횟수 관련 14개 문항 평균의 로그 값	
		수업이해도	국영수 교과 수업이해도의 평균	
		독서활동	독서활동 관련 9개 문항 평균	
		교육포부	희망 교육 연한	
	학교 특성	학교만족도	전반적인 학교만족도	
학교 특성		지역 규모	도시(1), 읍면(0)	
		학급 규모	(전체 학생수)÷(학급수)	
특성		기초수급자비율	전체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대상 학생 비율 (%)	
		교복우 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운영(1), 미운영(0)	
교사 특성		교직경력	학교 평균 교사의 교직경력(년)	
		교사 열의	교사 열의 관련 3개 문항 평균	
		교사 효능감	교사 효능감 관련 9개 문항 평균	
		교사 특성	동료교사 협력	동료교사와의 협력 관련 5개 문항 평균
			수업개선활동	수업개선활동 참여빈도 관련 6개 문항 평균 미참여(1), 연1회(2), 연2회(3), 연3회(4), 연4회(5), 연5회 이상(6)
	학교장	수업방법 (학습자중심)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관련 9개 문항 평균	
		성별	남교장(1), 여교장(0)	
		변혁적 리더십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관련 12개 문항 평균	

[표 3-1]에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업탄력성 여부로, 0과 1의 값을 갖는 이항 변수이다. 학생의 학업탄력성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존 선행연구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지수(SES 지수)를 독립변수로,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그에

대한 표준화 잔차(residual)를 계산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지수의 값이 하위 25%(제1사분위수 이하)이면서, 학업성취도에 대한 표준화 잔차가 상위 25%(제3사분위수 이상)에 속할 경우 학업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OECD, 2016; 박현정, 이진실, 2015; 곽현석, 2018). 이때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지수는 가정의 월 소득을 매년 반영하여 해당연도마다 새롭게 산출하였으며, 학생 학업성취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의 세 교과에서의 t-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각 연도별로 구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려는 독립변수는 크게 둘로 구분되며 이는 각각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이다. 먼저 학생특성 변수로 개인특성과 학습특성이 있다. 개인특성으로는 성별, SES 지수, 로그 여가 시간(친구), 자아개념(관계지향), 비행빈도 변수를 사용한다. 성별에서 남학생은 '1', 여학생은 '0'으로 코딩하였다. SES 지수는 학업탄력성 여부를 구분할 때 사용한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지수로 부 학력, 모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을 각각 표준화시킨 후, 표준화시킨 세 값의 평균을 구한 것이다. 로그 여가 시간(친구)는 학생이 방과 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나타내며 '분' 단위로 환산하며, 정적 편포를 보이므로 여가 시간에 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한다. 자아개념(관계지향)은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나는 단체생활을 잘한다' 등에 관한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5점 척도로 응답한 값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비행빈도는 학생의 비행빈도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떠든다',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친다' 등의 행동을 하는 연간 빈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비행빈도 횟수에 따라 '0'은 1년 동안 비행빈도가 없는 경우, '1'은 연간 비행빈도가 1회인 경우이며, 비행빈도는 이처럼 연간 비행빈도의 횟수를 나타낸다. 비행빈도의 경우 정적 편포 형태를 나타내므로 분석 시 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한다.

학생의 학습특성으로는 수업이해도, 독서활동, 교육포부, 학교만족도 변수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수업이해도는 국어, 수학, 영어의 각 교과에서의 수업이해정도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였다. 독서활동은 학생의 독

서활동 정도를 의미하며, 문항 예시로 ‘책을 선물 받을 때 기쁘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독서를 한다’ 등이 있다. 이러한 독서활동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그렇다’는 ‘5’, ‘그렇다’는 ‘4’, ‘보통이다’는 ‘3’, ‘그렇지 않다’는 ‘2’, ‘전혀 그렇지 않다’는 ‘1’로 코딩하였으며, 이러한 문항 응답의 평균값을 활용한다. 교육포부는 학생 본인이 처한 여건과는 별개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교육수준 정도로, 학교급에 따른 연한을 나타낸다. 가령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는 ‘12’, 4년제 대학교 졸업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는 ‘16’이다. 학교만족도는 전반적인 학교만족도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으로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이다.

학교특성은 학교, 교사, 학교장에 관련된 특성이다. 먼저 학교와 관련하여 지역 규모, 학급 규모, 기초수급자비율,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관한 변수를 사용한다. 지역 규모는 학교 소재지가 도시인 경우 ‘1’, 읍면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학급 규모는 학교의 평균적인 학급 당 학생수를 의미하는데, 각 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학급 수로 나눈 값을 활용하여 연속적인 값을 갖도록 하였다. 기초수급자비율은 해당 학교마다 기초수급대상에 포함되는 학생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값으로, 각 학교의 기초수급대상인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교복우 사업을 ‘1’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교복우 사업을 ‘0’으로 코딩하여 활용한다.

교사와 관련된 특성으로 교직경력, 교사 열의, 교사 효능감, 동료교사 협력, 수업개선활동, 수업방법(학습자중심) 변수를 사용하며, 각 변수들은 해당 학교의 교사가 응답한 값을 각 학교 수준으로 평균을 내어 구한 학교 평균 교사특성을 의미한다. 교직경력은 학교의 평균적인 교사들의 교직경력을 의미하며, 가령 학교 평균 교사의 교직경력이 5년인 경우 그 값은 ‘5’이다. 교사 열의는 교사의 열의와 관련된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 평균값을 구한 것이며, 문항 예시로는 ‘나는 열의를 갖고 근무한다’, ‘나는 의욕이 높다’ 등이 있다. 교사 효능감은 교수자로서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



분된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을 구하였다. 교사 효능감 관련 문항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생활지도를 할 때 학생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다’ 등을 포함하여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료교사 협력은 교사가 일주일 평균 해당 항목에 대하여 동료 교사와 협력하는 정도로, ‘학생들의 수업 태도 및 행동’, ‘학생들의 가정환경 및 생활지도’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수업개선활동은 교사가 수업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를 묻는 문항으로, 예를 들어 ‘자신의 수업 공개 빈도’에 대한 응답이 미참여인 경우 ‘1’이며 연간 5회 이상인 경우는 ‘6’을 나타내는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수업방법(학습자중심)은 교사가 학습자중심의 수업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학생들이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결론을 내리도록 안내한다’ 등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구하여 활용하였다.

학교장 특성으로는 성별과 변혁적 리더십 변수를 분석에 활용한다. 교장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 ‘1’, 여성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의 정도를 나타내는 총 12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으로, 문항 예시로 ‘학교목표의 설정과 평가 과정에 교사들을 참여시킨다’,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학교 공동체 문화를 증진시키려 노력한다’ 등이 있다.

## 제 4 절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석방법으로 기술통계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먼저 연구문제 1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다. 초등학생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지수에 따라 학업성취정도를 구분하고, 2012년-2014년의 3개년에 걸쳐 살펴봄으로써, 학생의 가정배경에 따라 나타나는 학생 학업성취에서의 특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업탄력적 학생 규모를 확인한다. 이에 더하여 학생 성별, 주요 교과목 등의 유형별로 학업탄력성 학생 수와 비율을 확인하고 그 특징을 파악한다. 또한 연구에서 활용하려는 데이터가 종단자료임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학업탄력성 여부에 대한 변화를 3개년에 걸쳐 추적하고, 학업탄력성 여부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을 집단으로 분류하여 그 규모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의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와 연구문제 3의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서는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생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에서의 영향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가 학업탄력성 여부임을 고려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분석 방법으로 활용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연속변수가 아닌 비연속 변수 또는 범주형(nominal type)일 때 사용하는 회귀분석의 확장방법이다.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경우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어, 두 변수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S자 곡선 형태의 로지스틱(logistic) 함수를 사용한다. 가령 종속변수  $y$ 가 합격 또는 불합격과 같은 이항형 변수라면 실제  $y$ 값은 0과 1로 코딩된 값을 지니게 되고, 예측된  $y$ 값은 확률의 개념을 갖게 된다(정성호, 2013; 홍세희, 2005).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해석에서 승산을 이용하는 것이 그 의미가 명확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데, 독립변수  $x$ 의 로지스틱 회귀계수  $b$ 를  $\exp(b)$ 로 변환시킨 것이 승산비(odds ratio: OR)이다(홍세희, 2005).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에서의 종속변수는 학업탄력성 여부이며 연속형 변수가 아닌 이항 변수로 학업탄력성이 있는 경우의 값이 1, 학업탄력성이 없는 경우의 값이 0을 갖는다. 따라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통하여 종속변수인 학업탄력성이 있을 확률에 영향을 주는 학생특성 및 학교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초등학생이 6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이 새롭게 생성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다음 [식 1]과 같다.

$$[\text{식 1}]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n X_n + \epsilon_i$$

[식 1]에서  $Y$ 는 종속변수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이 없었던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시기가 되어 학업탄력성이 새롭게 생성될 확률을 의미한다.  $X_1$ 은 학업탄력성이 생성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하며  $\beta_1$ 은 영향 요인인  $X_1$ 에 대한 영향을 의미하는 계수이다.

초등학생이 6학년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학업탄력성을 유지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다음 [식 2]와 같다.

$$[\text{식 2}]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n X_n + \epsilon_i$$

[식 2]에서  $Y$ 는 종속변수로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학업탄력성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 6학년이 되어서도 계속 학업탄력성을 유지할 확률을 의미한다.  $X_1$ 은 학업탄력성을 유지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하며  $\beta_1$ 은 영향 요인인  $X_1$ 에 대한 영향을 의미하는 계수이다.

분석을 위해 학생특성과 관련된 변수와 학교 관련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모형1과 모형2를 활용하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stata version 13을 활용한다. 먼저 모형1을 통해 개별 학생의 학업탄력성 생성 확률과 유지 확률에 각각 영향을 주는 학생특성에서의 영향 요인을 탐색한다. 다음으로 모형2에서는 모형1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모형1에서 탐색한 것과 동일하게 학생의 학업탄력성 생성 확률과 유지 확률에 각각 영향을 주는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의 영향 요인을 탐색한다.

## 제 4 장 분석 결과

### 제 1 절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

#### 1. 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지수와 학업성취

각 연도별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지수(SES 지수) 1분위-4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12년의 경우는 다음 [표 4-1]과 같이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지수가 높은 학생들이 학업성취가 대체적으로 높은 집단에 속하였고, 한편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지수가 낮은 학생들은 학업성취가 낮은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표 4-1] 2012년 SES 지수와 학업성취 분위별 학생 수

구분	SES 지수	SES 지수	SES 지수	SES 지수	합계 (명)
	1분위 (0%-25%)	2분위 (25%-50%)	3분위 (50%-75%)	4분위 (75%-100%)	
학업성취 1분위 (0%-25%)	309 (11.10%)	180 (6.46%)	120 (4.31%)	77 (2.76%)	686
학업성취 2분위 (25%-50%)	194 (6.97%)	195 (7.00%)	168 (6.03%)	139 (4.99%)	696
학업성취 3분위 (50%-75%)	122 (4.38%)	169 (6.07%)	206 (7.40%)	199 (7.15%)	696
학업성취 4분위 (75%-100%)	85 (3.05%)	129 (4.63%)	202 (7.25%)	281 (10.09%)	697
합계(명)	710	683	696	696	2785 (100%)

[표 4-1]에서 전체 2785명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 즉 학업성취 4분위 집단에 속하는 학생은 총 697명이다. 이 중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SES 지수 3분위와 4분위의 학생들이 각각 202명과 281명으로, SES 지수 1분위와 SES 지수 2분위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SES 지수 1분위 집단에서 학업성취 4분위에 속하는 학생은 85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학생 중 비율 측면에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SES 지수 1분위인 동시에 학업성취가 1분위인 학생들로 전체 학생의 약 11.1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높은 부분은 SES 지수가 4분위이면서 학업성취가 4분위인 학생들로 전체 학생 중 약 10.09%를 차지한다. 즉 가정배경 지수가 낮으면서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과 가정배경 지수가 높으면서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2013년은 2012년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5학년이 된 해로, 2012년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2013년 SES 지수와 학업성취 분위별 학생 수

구분	SES 지수	SES 지수	SES 지수	SES 지수	합계 (명)
	1분위 (0%-25%)	2분위 (25%-50%)	3분위 (50%-75%)	4분위 (75%-100%)	
학업성취 1분위 (0%-25%)	321 (11.53%)	194 (6.97%)	98 (3.52%)	83 (2.98%)	696
학업성취 2분위 (25%-50%)	190 (6.82%)	185 (6.64%)	192 (6.89%)	128 (4.60%)	695
학업성취 3분위 (50%-75%)	128 (4.60%)	170 (6.10%)	201 (7.22%)	198 (7.11%)	697
학업성취 4분위 (75%-100%)	67 (2.41%)	140 (5.03%)	204 (7.32%)	286 (10.27%)	697
합계(명)	706	689	695	695	2785 (100%)

위의 [표 4-2]에서 2013년 학업성취 4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체 학

생 2785명 중 697명이다. 학업성취 4분위 집단 즉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의 학생을 SES 지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SES 지수가 낮은 학생들이 차지하는 수가 가장 적고, SES 지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그 수가 많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학업성취 4분위에 해당하는 697명 중 SES 지수 1분위 집단의 학생은 67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서 SES 지수 2분위 집단의 학생은 140명, SES 지수 3분위 집단의 학생은 204명이었으며, SES 지수가 가장 높은 SES 지수 4분위 집단의 학생은 286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 중 SES 지수가 1분위인 동시에 학업성취가 1분위인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약 11.53%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전년도에 비해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도 역시 전년도인 2012년과 마찬가지로 SES 지수가 4분위이면서 학업성취가 4분위인 학생들로 전체 학생 중 약 10.27%를 차지하며, 전년도에 비하여 그 비율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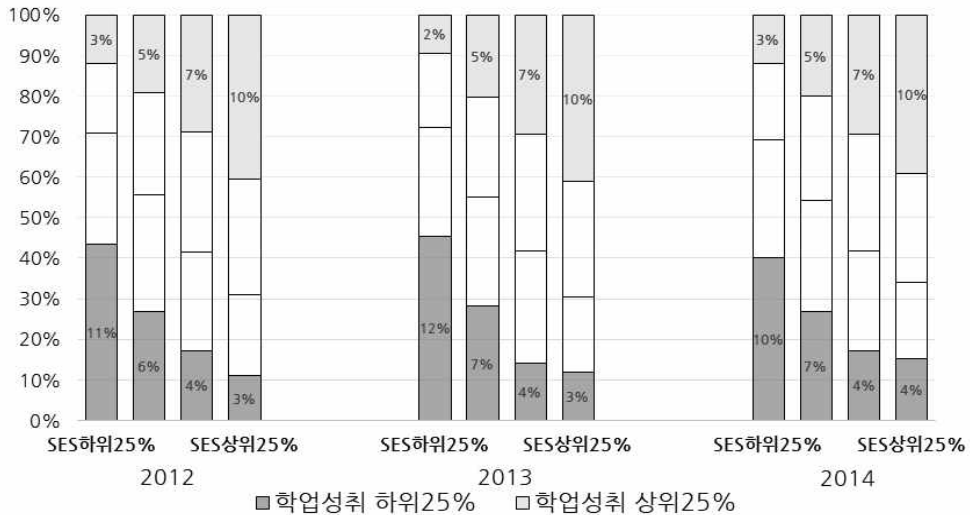
2014년은 전체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시기로, 다음 [표 4-3]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표 4-3] 2014년 SES 지수와 학업성취 분위별 학생 수

구분	SES 지수	SES 지수	SES 지수	SES 지수	합계 (명)
	1분위 (0%-25%)	2분위 (25%-50%)	3분위 (50%-75%)	4분위 (75%-100%)	
학업성취 1분위 (0%-25%)	289 (10.38%)	182 (6.54%)	122 (4.38%)	104 (3.73%)	697
학업성취 2분위 (25%-50%)	210 (7.54%)	185 (6.64%)	174 (6.25%)	127 (4.56%)	696
학업성취 3분위 (50%-75%)	134 (4.81%)	174 (6.25%)	206 (7.40%)	182 (6.54%)	696
학업성취 4분위 (75%-100%)	87 (3.12%)	136 (4.88%)	208 (7.47%)	266 (9.55%)	697
합계(명)	719	677	710	679	2785 (100%)

[표 4-3]에서 학업성취 4분위에 해당하는 학생 697명 중 SES 지수 1분위 집단에 해당하는 학생은 87명으로 가장 적었다. SES 지수가 높은 집단에 해당할수록 학업성취 4분위에 속하는 학생의 수가 많았다. SES 지수 2분위 집단의 학생은 136명, SES 지수 3분위 집단 학생은 208명, SES 지수 4분위 집단의 학생은 2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은 2012년, 2013년과 동일하게 SES 지수 1분위이면서 학업성취가 1분위인 학생들로 전체 학생의 약 10.3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 높은 비율도 마찬가지로 SES 지수가 4분위이면서 학업성취가 4분위인 학생들로 전체 학생 중 약 9.55%를 차지하였다.

종합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의 가정배경 지수와 학업성취는 다음 그림[4-1]과 같다.



[그림 4-1] 2012년-2014년 학생의 가정배경 지수와 학업성취

[그림 4-1]에서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총 3개년 모두 SES 지수가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와 반대로 SES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가정배경에 따른 학생의 교

육격차가 존재해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격차가 고착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유형별 학업탄력적 학생 수의 변화 양상

학업탄력적인 학생은 SES 지수가 1분위 이하(SES 지수 하위 25%)이면서 학업성취에 대한 표준화 잔차가 75%이상을 보이는 학생으로, 각 연도별 학업탄력적인 학생 수는 다음 [표 4-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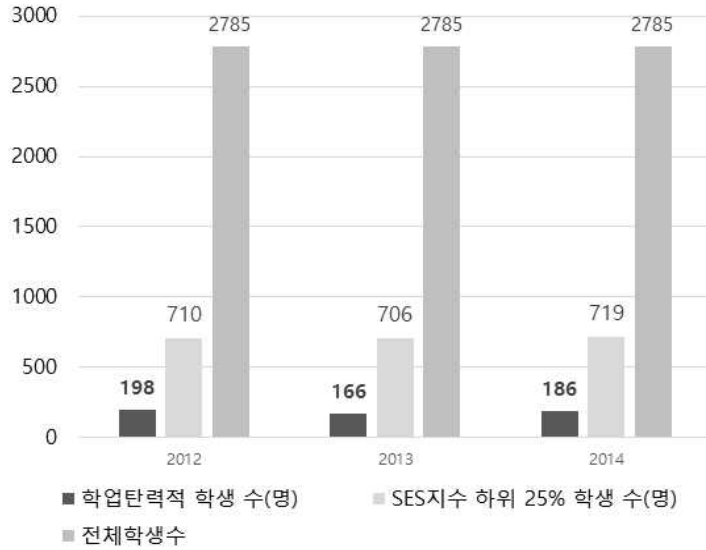
[표 4-4] 2012년-2014년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

구분	학업성취 표준화잔차 (0%-25%)	학업성취 표준화잔차 (25%-50%)	학업성취 표준화잔차 (50%-75%)	학업성취 표준화잔차 (75%-100%)	합계 (명)
2012	233	162	117	198 (27.89%)	710
2013	229	164	147	166 (23.51%)	706
2014	223	185	125	186 (25.87%)	719
전체	27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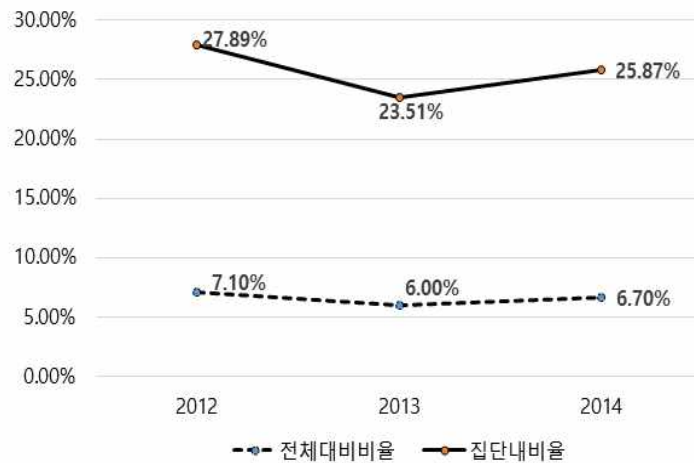
[표 4-4]에서 먼저 2012년의 학업탄력적 학생 수를 살펴보면 198명으로, 해당 연도의 SES 지수 1분위 집단에 속하는 전체 학생 710명 중 27.89%를 차지한다. 다음 해인 2013년의 학업탄력적 학생은 166명이며, 해당 연도의 SES 지수 1분위 집단에 포함되는 학생 706명 중 약 23.51%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어 2014년에는 학업탄력적 학생 수가 186명이며 당해 SES 지수 1분위 집단에 해당하는 학생 총 719명 중 25.87%를 차지한다.

학업탄력적 학생 수의 변화 및 그 비율의 변화는 각각 다음 [그림 4-2], [그림 4-3]과 같다.





[그림 4-2] 2012년-2014년 학업탄력적 학생 수 변화



[그림 4-3] 2012년-2014년 학업탄력적 학생 비율 변화

[그림 4-2]와 [그림 4-3]을 살펴보면 2012년에서 2013년이 되면서 학업탄력적 학생의 수와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서 2014년이 되면

서 그 수와 비율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첫째인 2012년에 비하여 2013년과 2014년 모두 학업탄력적인 학생 수와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은 다음 [표 4-5]와 같다. 2012년-2014년의 3개년에 걸쳐 학업탄력적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 인원이 더 많았다.

[표 4-5] 2012년-2014년 학생 성별과 학업탄력적 학생의 수와 비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남학생	학업탄력적 학생 수(명)	81	72	83
	학업탄력적 학생 대비 비율(%)	40.91	43.37	44.62
	전체학생대비 비율(%)	2.91	2.59	2.98
	SES 지수 하위 25% 대비 비율(%)	11.41	10.20	11.54
여학생	학업탄력적 학생 수(명)	117	94	103
	학업탄력적 학생 대비 비율(%)	59.09	56.63	55.38
	전체학생대비 비율(%)	4.20	3.38	3.70
	SES 지수 하위 25% 대비 비율(%)	16.48	13.31	14.33
전체	학업탄력적 학생 수(명)	198	166	186
	SES 지수 하위 25% 학생 수(명)	710	706	719
	전체 학생 수(명)	2785	2785	2785

[표 4-5]에서 남학생의 경우 2012년-2014년에 걸쳐 학업탄력적 학생 수는 81명에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4년 83명이었다. 또한 학업탄력적 학생 대비 남학생 비율은 약 40.91%-44.62%를 차지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2014년에 걸쳐 학업탄력적 학생수가 117명에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103명이었다. 학업탄력적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약 55.38%-59.09%이다. 요약하면 학

생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탄력적 학생의 수가 많고 그 비율이 높았다.

한편 주요 교과별로 나누어, 각 교과에서 학업탄력성을 보이는 학생 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2012년-2014년 주요 교과별 학업탄력적 학생의 수와 비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국어	학업탄력적 학생 수(명)	200	183	206
	전체학생대비 비율(%)	7.18	6.57	7.40
	SES 지수 하위 25% 대비 비율(%)	28.17	25.92	28.65
수학	학업탄력적 학생 수(명)	184	154	167
	전체학생대비 비율(%)	6.61	5.53	6.00
	SES 지수 하위 25% 대비 비율(%)	25.92	21.81	23.23
영어	학업탄력적 학생 수(명)	255	214	226
	전체학생대비 비율(%)	9.16	7.68	8.11
	SES 지수 하위 25% 대비 비율(%)	35.92	30.31	31.42
전체	SES 지수 하위 25% 학생 수(명)	710	706	719
	전체학생 수(명)	2785	2785	2785

[표 4-6]에서 주요 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학업탄력적 학생 인원수와 비율 변화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학업탄력적 학생 수가 2012년에서 2013년까지는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첫 해인 2012년에 비하여 2014년에는 학업탄력적 학생이 적어졌다.

각 교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어 교과에서는 수학, 영어 교과와 비교할 때 학업탄력적 학생 규모는 중간 수준이었다. 국어 교과에서의 학업

탄력적 학생이 2012년에는 200명에서 2013년에는 183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에는 206명이 되었다. 이는 전체 학생인 2785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6.57%-7.40%의 비율이며, 또한 SES 지수 하위 25%집단과 비교할 때 약 25.92%-28.6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수학 교과에서는 학업탄력적 학생 인원이 국어와 영어 교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수와 비율이 가장 적은 편이었다. 수학 교과에서의 학업탄력적 학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12년에는 184명, 2013년에는 154명, 2014년에는 167명이었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 2785명 중 약 5.52%-6.61%이며, SES 지수 하위 25%집단 중 약 21.81%-25.92%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영어 교과에서는 학업탄력적 학생이 수학과 국어 교과목에 비하여 가장 많은 인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영어 교과의 학업탄력적 학생은 해가 지나면서 2012년에는 255명, 2013년 214명, 2014년 22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생과 비교하였을 때 약 7.68%-9.16%의 비율을 보이며, SES 지수 하위 25%집단 중에서도 약 30.31%-35.92%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주요 교과와 학생 성별에 따른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을 확인하면 다음 [표 4-7]과 같으며,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는 매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탄력적 인원이 많고, 수학 교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탄력적 학생이 많았다.

[표 4-7] 2012년-2014년 주요 교과 및 학생 성별과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국	수	영	국	수	영	국	수	영
남	학업탄력적 학생 수(명)								
	69	100	109	67	89	95	81	84	106
학	학업탄력적 학생 대비 비율(%)								
생	34.50	54.35	42.75	36.61	57.79	44.39	39.32	50.30	46.90

여학생	학업탄력적 학생 수(명)	131	84	146	116	65	119	125	83	120
남학생	학업탄력적 학생 대비 비율(%)	65.50	45.65	57.25	63.39	42.21	55.61	60.68	49.70	53.10
학업탄력적 학생 수(명)		200	184	255	183	154	214	206	167	226

[표 4-7]에서 2012년-2014년 동안 각 교과별 학생 성별에 따른 학업탄력적 학생 인원 에 차이가 있었으며, 먼저 국어 교과에서는 매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탄력적 학생 수가 많았다. 2012년의 경우 학업탄력적 여학생은 131명, 남학생은 69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여학생 인원이 많았다. 비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어 교과에서 학업탄력적 학생 중 각 성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남학생이 약 34.50%-39.32%, 여학생이 60.68%-65.50%로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수학 교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탄력적 학생 수가 많았다. 학업탄력적 학생 중 수학 교과에서의 남학생 비율은 3년간 약 50.30%-57.79%를 차지하며, 여학생 비율은 42.21%-49.70%를 보였다. 영어 교과를 살펴보면 3년간 여학생은 약 53.10%-57.25%를, 남학생은 약 42.75%-46.90%를 차지한다. 교과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는 학업탄력적인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고, 수학 교과에서는 학업탄력적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율이 높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 3. 초등학생 학업탄력성의 종단적 변화 양상

학생의 SES 지수 1분위 즉 SES 지수가 하위 25%에 속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업탄력성 변화를 추적하였다. 매해마다 학업탄력성 여부에 따른 학생 수와 그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4-8]과 같다.

[표 4-8] 2012년-2014년 동일 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와 학생 수 및 비율

구분	2012	2013	2014
학업탄력성 있음(1)	159 (27.46%)	138 (23.83%)	148 (25.56%)
학업탄력성 없음(0)	420 (72.54%)	441 (76.17%)	431 (74.44%)
합계(명)	579 (100%)	579 (100%)	579 (100%)

주1) 3개년 모두 유효한 사례를 대상으로 함. 2012년-2014년 각 해마다 SES 지수 1분위 집단에 속하는 학생은 총 710명, 706명, 719명이나, 그 중 579명이 3개년 전체에 걸친 학업탄력성 유무에 대한 구분이 가능함

주2) SES 지수는 각 연도에 따른 월 가구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생성하여 학업탄력적 학생을 구분하는 데 활용함

[표 4-8]에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SES 지수 1분위 이하인 학생 중 학업탄력성 여부에 대한 종단적 구분이 가능한 학생은 총 579명으로, 그 인원은 다음과 같다. 2012년에는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은 159명, 학업탄력성이 없는 학생은 420명이었다. 다음 해인 2013년에는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이 138명, 학업탄력성이 없는 학생은 441명이다.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이 148명, 학업탄력성이 없는 학생은 431명이었다.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12년 27.46%에서 다음 해인 2013년에는 23.83%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에는 25.56%가 되었다. 한편 학업탄력성이 없는 학생은 SES 지수 1분위 이하의 학생 중 2012년에 72.54%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에는 76.17%이고 2014년에는 74.44%의 비율을 보였다. 즉 SES 지수 1분위 이하의 학생 중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그 인원이 적고 비율이 작았으며, 첫해인 2012년에서 마지막 해인 2014년이 되면서 더 줄어들었다.

3개년 동안의 개별 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를 추적하여 학업탄력성 유무에 따라 총 8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집단 구분은 다음 [표 4-9]와 같다.

[표 4-9] 2012년-2014년 학생 학업탄력성 변화에 따른 집단구분

구분	학업탄력성 여부			학생 수(명)
	초4 (2012)	초5 (2013)	초6 (2014)	
집단1	없음(0)	없음(0)	없음(0)	350
집단2	없음(0)	없음(0)	있음(1)	30
집단3	없음(0)	있음(1)	없음(0)	19
집단4	없음(0)	있음(1)	있음(1)	21
집단5	있음(1)	없음(0)	없음(0)	33
집단6	있음(1)	없음(0)	있음(1)	28
집단7	있음(1)	있음(1)	없음(0)	29
집단8	있음(1)	있음(1)	있음(1)	69
합계(명)				579

[표 4-9]에서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는 모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이 없는 학생 총 420명이며, 이후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업탄력성 유무에 대한 변화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1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3개년 동안 학업탄력성이 없었던 학생으로 350명이다. 집단2는 학업탄력성이 없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학업탄력성이 생긴 학생으로 그 인원은 30명이다. 집단3은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일시적인 학업탄력성을 보였으나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학업탄력성이 없어진 학생 19명이다. 집단4는 4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이 없었으나 이후 학업탄력성이 생성되어 6학년 시기까지 학업탄력성이 생성된 학생으로 21명이다.

한편 집단5, 집단6, 집단7, 집단8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으로 총 159명이다. 각 집단을 살펴보면, 집단5는 4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이후 학업탄력성을 보이지 않는 학생 33명이다. 집단6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을 가지고 있

다가 5학년 시기에 일시적으로 학업탄력성이 사라졌으나,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다시 학업탄력성을 회복한 학생 28명이다. 집단7은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을 보이다가 6학년이 되어 학업탄력성이 없어진 학생 29명이다. 그리고 집단8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가지고 있던 학업탄력성이 5학년과 6학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 학생으로 총 69명이다.

## 제 2 절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1. 기술통계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의 분석대상은 2012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해당 시기에 학업탄력성이 없었던 학생 420명이다. 전체 420명 학생 중 초등학교 6학년 시기 학업탄력성 생성 여부에 따라, 학업탄력성 생성에 해당되는 집단 51명과 해당되지 않는 집단 369명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6학년 시기 학업탄력성 생성 여부에 따라 두 집단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두 집단의 기술통계치를 비교하였을 때, 학업탄력성 생성에 해당되는 집단에서 학습특성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이해도, 독서활동, 교육포부, 학교만족도의 평균이 더 높았다. 한편 학업탄력성 생성에 미해당되는 집단에서는 학생의 개인특성에서 친구와 보내는 여가 시간, 비행빈도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이 없었던 학생을 대상으로, 6학년 시기 학업탄력성이 생성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 [표 4-10]과 같다.



[표 4-10] 초6 시기 학업탄력성 생성 요인 기술통계

변수명	6학년 시기 학업탄력성 생성										합 계	
	해당					미해당						
	N	Mean	S.D.	Min	Max	N	Mean	S.D.	Min	Max		N
개인 특성	남학생	51	0.53	0.50	0	1	369	0.56	0.50	0	1	420
	SES 지수	51	-0.94	0.30	-2.16	-0.62	369	-0.89	0.25	-2.06	-0.62	420
	여가 시간 (친구)	51	64.12	51.88	0	210	367	80.48	79.40	0	300	418
	자아개념 (관계지향)	51	3.99	0.78	1.80	5.00	369	3.93	0.83	1	5	420
	비행빈도	51	8.17	10.23	0	31.64	369	12.69	19.46	0	100.70	420
학습 특성	수업이해도	51	4.47	0.45	3	5	369	3.71	0.88	1	5	420
	독서활동	51	3.19	0.56	1.67	4.56	369	2.75	0.71	1	4.56	420
	교육포부	50	14.58	4.12	6	21	366	11.99	5.10	6	21	416
	학교만족도	51	3.78	0.64	2	5	367	3.60	0.70	1	5	418
학교 특성	지역 규모	51	0.67	0.48	0	1	369	0.67	0.47	0	1	420
	학급 규모	51	25.23	4.27	13.00	30.26	369	25.37	4.57	9.17	35.62	420
	기초수급자 비율	48	2.42	3.59	0	17.89	350	2.29	2.82	0	17.89	398
	교복우사업	50	0.24	0.43	0	1.00	348	0.16	0.36	0	1.00	398
교사 특성	교직경력	51	11.48	4.20	2.50	20.83	369	12.06	3.68	2.50	20.83	420
	교사 열의	51	4.20	0.49	3.33	5	369	4.14	0.46	3	5	420
	교사 효능감	51	4.28	0.34	3.44	4.80	369	4.30	0.24	3.44	4.80	420
	동료교사 협력	51	2.43	0.76	1.55	4.47	369	2.49	0.75	1.50	4.47	420
	수업개선 활동	51	2.64	0.73	1	4.83	369	2.65	0.62	1.00	4.83	420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51	4.08	0.44	3.15	4.78	369	4.07	0.34	3.11	4.78	420
	남교장	51	0.78	0.42	0	1	369	0.79	0.41	0	1	420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51	4.84	0.22	4.17	5	369	4.80	0.25	3.92	5	420	

구체적으로 [표 4-10]에서 먼저 6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 생성에 해당하는 집단에 해당하는 51명 학생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특성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SES 지수는 학업탄력성이 생성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낮았다.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여가 시간은 평균 약 64.12분이고, 관계지향적 자아개념 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3.99점, 연간 비행빈도는 평균 약 8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습특성에서 학업탄력성 생성에 해당하는 집단이, 미해당 집단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평균값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업이해도는 평균적으로 약 4.47점이며, 독서활동 수준은 약 3.19점, 학생의 교육포부는 약 14.58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의 평균은 3.78점이었다. 학교특성에서는 학교 소재지가 도시인 경우가 약 67%였으며, 평균 학급 규모는 25.23명이었다. 기초수급자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2.42%이었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학교의 비율은 약 24%로 나타났다. 교사특성을 살펴보면 교사들의 학교 평균 교직경력은 약 11.48년, 교사의 열의는 약 4.2점, 교사 효능감은 대략 4.28점이었다. 동료교사의 협력정도는 평균 2.43점, 수업개선 활동은 학교 평균적으로 2.64점으로 대략 연간으로 1.64회 정도 참여한 수준을 나타낸다. 또한 교사의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정도는 학교 평균 약 4.0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의 특성에서 남교장의 비율이 대략 78%이고, 변혁적 리더십의 정도는 약 4.84점이었다.

다음으로 6학년 시기 학업탄력성 생성 미해당 집단인 369명 학생의 주요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특성에서 남학생의 비율은 약 56%이며, SES 지수는 학업탄력성 생성에 해당하는 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이었다. 방과후 친구와의 여가 시간은 평균 약 84.48분으로 학업탄력성 생성에 해당하는 집단에 비하여 약 16분 정도 길었다. 관계지향적 자아개념 수준은 평균 약 3.93점, 연간 비행빈도는 평균 약 12회로 나타났다. 학습특성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수업이해도 평균은 대략 3.71점이고, 독서활동 수준은 약 2.75점, 학생의 교육포부는 약 11.99년,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평균은 약 3.60점으로 관련 변수들의 평균값이 학업탄력성 생성에 해당하는 집단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학교 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학교 소재지의 약 67%가 도시이며, 평균 학급 규

모는 25.37명이다. 또 학교의 기초수급자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2.29%이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학교의 비율은 약 16%로 나타났다. 교사특성은 학교 평균 수준 교사특성으로, 먼저 학교 평균 교직경력은 약 12.06년, 교사 열의는 약 4.14점, 교사 효능감은 약 4.30점 정도였다. 동료교사와의 협력정도는 평균 2.49점, 수업개선 활동은 학교 평균적으로 2.65점으로 약 연간 1.65회 정도 참여한 정도이다. 그리고 교사의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정도는 학교 평균 약 4.07점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의 특성 중 성별에서 남교장의 비율이 대략 79%이며, 변혁적 리더십의 정도는 약 4.80점이었다.

## 2. 초등학교 6학년 시기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

다음 [표 4-11]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학업탄력성이 없었던 학생이 6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을 생성시키는 요인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학생변수를 투입한 모형1은 모형의 유의성 측면에서 카이제곱 70.98( $p < 0.01$ )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변수를 추가 투입한 모형2의 적합도는 카이제곱 74.67( $p < 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초4-초6 시기 학업탄력성 생성 요인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1 (학생변수)			모형2 (모형1+학교변수 투입)		
		계수	표준 오차	exp(b)	계수	표준 오차	exp(b)
<b>학생변수</b>							
개인 특성	남학생	-0.113	0.350	0.893	-0.323	0.391	0.724
	SES 지수	-1.477**	0.616	0.228	-1.220*	0.684	0.295
	로그 여가시간	0.064	0.055	1.066	0.057	0.061	1.059

	(친구)						
	자아개념 (관계지향)	-0.649***	0.231	0.523	-0.605**	0.265	0.546
	로그 비행빈도	-0.016	0.146	0.984	0.021	0.162	1.021
학습 특성	수업이해도	1.737***	0.340	5.681	1.792***	0.375	6.001
	독서활동	0.683**	0.274	1.979	0.657**	0.284	1.929
	교육포부	0.065*	0.036	1.067	0.071*	0.040	1.073
	학교만족도	0.348	0.250	1.416	0.394	0.281	1.484
<b>학교변수</b>							
학교 특성	지역 규모				0.257	0.514	1.292
	학급 규모				-0.067	0.067	0.935
	기초수급자 비율				0.000	0.085	1.000
	교복우 사업				1.401**	0.655	4.060
교사 특성	교직경력				0.063	0.069	1.066
	교사 열의				0.699	0.691	2.011
	교사 효능감				-2.621	1.782	0.073
	동료교사 협력				-0.385	0.334	0.680
	수업개선활동				0.257	0.452	1.293
	수업방법 (학습자 중심)				0.417	1.189	1.517
학교장	남교장				-0.432	0.567	0.649
	변혁적 리더십				0.642	1.035	1.900
cons		-12.241***			-7.777		
Pseudo- $R^2$		0.2331			0.2680		
-2LL		116.7951			101.97973		
Chi-square		70.98***			74.67***		
사례수		412			373		

\* p<.1; \*\* p<.05; \*\*\* p<.01

위의 [표 4-11]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학업탄력성이 없는 학생 중 6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이 생기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형1에서 학생 개인특성 중 SES 지수가 낮을수록, 관계지향적인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학업탄력성 생성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생 학습특성에서는 수업이해도가 높을수록, 독서활동정도가 높을수록, 교육

포부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 생성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의 학업탄력성 생성 요인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학생의 개인특성 중 SES 지수가 1 높아지면 학업탄력성 생성에 대한 승산이 약 0.23 감소, 관계지향적 자아개념이 1 증가하면 학업탄력성 생성에 대하여 승산이 약 0.5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학습특성에서는 수업이해도가 1 높아지면 학업탄력성 생성에 대한 승산이 약 5.68 증가하며, 학생의 독서활동정도가 1 높아질 때 학업탄력성 생성의 승산이 약 1.98 증가, 교육포부가 1년 높아지면 학업탄력성 생성에 있어 그 승산이 약 1.0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1에서 학업탄력성 생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학생특성인 학생의 SES 지수, 관계지향적 자아개념, 수업이해도, 독서활동, 교육포부가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2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된 학교특성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여부가 학업탄력성 생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 개인특성에서 가정의 SES 지수와 관계지향적 자아개념은 학업탄력성 생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주며, 학생 학습특성에서 수업이해도, 독서활동, 교육포부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특성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운영되는 학교에서 학업탄력성 생성 승산이 약 4.06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3 절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1. 기술통계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한 대상은 2012년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해당 시기에 학업탄력성을 가진 학생 159명이다. 전체 159명의 학생 중에서 6학년 시기까지 학업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에 해당되는 학생은 97명, 미해당 집단에 해당되는 학생은 62명이다. 두 집단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 4-12] 초6 시기 학업탄력성 유지 요인 기술통계

변수명	6학년 시기 학업탄력성 유지										합계	
	해당					미해당						
	N	Mean	S.D.	Min	Max	N	Mean	S.D.	Min	Max		N
개인 특성	남학생	97	0.40	0.49	0	1	62	0.47	0.50	0	1	159
	SES 지수	97	-0.89	0.26	-1.82	-0.62	62	-0.94	0.65	-5.66	-0.62	159
	여가 시간 (친구)	97	47.01	47.42	0	210	62	82.74	77.10	0	300	159
	자아개념 (관계지향)	97	4.13	0.72	1.20	5	61	4.20	0.71	2.40	5	158
	비행빈도	97	6.12	9.17	0	36.57	62	11.60	17.09	0	92.88	159
학습 특성	수업이해도	97	4.63	0.48	3	5	62	4.47	0.60	2.33	5	159
	독서활동	96	3.14	0.66	1.44	5	62	3.10	0.66	1.66	4.44	158
	교육포부	96	14.75	4.89	6	21	62	14.32	4.48	6	21	158
학교 특성	학교만족도	97	3.60	0.62	2	5	62	3.61	0.61	2	5	159
	지역 규모	97	0.76	0.43	0	1	62	0.84	0.37	0	1	159
	학급 규모	97	25.90	3.36	12.17	35.62	62	26.66	3.95	10.67	35.62	159
	기초수급자 비율	91	2.18	2.56	0	17.89	61	1.95	1.89	0	7.32	152
	교복우사업	91	0.16	0.37	0	1	56	0.11	0.31	0	1	147
교사 특성	교직경력	97	12.17	3.69	2.50	20.83	62	12.57	3.63	5	20	159
	교사 열의	97	4.06	0.45	3.06	4.89	62	4.07	0.42	3.33	4.89	159
	교사 효능감	97	4.27	0.26	3.44	4.71	62	4.24	0.26	3.44	4.71	159
	동료교사 협력	97	2.40	0.67	1.55	4.47	62	2.52	0.68	1.50	4.47	159
	수업개선 활동	97	2.59	0.53	1.83	4.83	62	2.52	0.44	1.75	3.50	159
학습자중심	97	4.02	0.34	3.15	4.78	62	3.99	0.33	3.11	4.63	159	

		수업방법										
학교장	남교장	97	0.82	0.38	0	1	62	0.81	0.40	0	1	159
	변혁적 리더십	97	4.81	0.25	4.17	5	62	4.80	0.28	3.916	5	159

[표 4-12]의 주요변수 기술통계치에서 우선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97명 학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개인특성에서 남학생의 비율은 약 40%이며, SES 지수는 학업탄력성 유지에 미해당되는 집단보다 높았다. 방과후 친구와의 여가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47분이며, 관계지향적 자아개념의 수준은 평균 약 4.13점이며, 연간 비행빈도는 약 6회로 나타났다. 그 다음 학습특성에서는 수업이해도가 평균 약 4.63점, 독서활동의 정도는 약 3.14점, 교육포부는 약 14.75년이었으며,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의 평균은 약 3.6점으로 나타났다. 학교특성으로 지역 규모에서 학교 소재지가 도시인 경우가 약 76%였으며, 평균 학급 규모는 25.9명이었다. 기초수급자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2.18%이었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학교의 비율은 약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특성에서는 교사의 학교 평균적인 수준으로 교직경력이 약 12.17년, 교사의 열의가 4.06점, 교사 효능감이 4.27점이었다. 동료교사와 협력정도는 평균 2.40점, 수업개선 활동은 학교 평균적으로 2.59점으로 대략 연간 1.59회 정도 참여하는 수준임을 나타낸다. 또한 교사의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정도는 학교 평균 약 4.0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의 특성에서 남교장의 비율이 약 82%이며, 변혁적 리더십의 정도는 약 4.81점이었다.

다음으로 6학년 시기 학업탄력성 유지에 대하여 미해당 집단인 62명 학생과 관련된 주요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학생 개인특성으로 남학생의 비율은 약 47%이며, SES 지수는 학업탄력성 생성에 해당하는 집단에 비하여 더 낮은 수준이었다. 방과후 친구와의 여가 시간은 평균 약 82.74분으로 학업탄력성 생성에 해당하는 집단에 비하여 약 35분 정도 길었다. 관계지향적 자아개념 수준은 평균 약 4.20점, 연간 비행빈도는 평균 약 11.6회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습특성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이해도

평균이 약 4.47점, 독서활동 수준은 약 3.10점, 학생의 교육포부는 약 14.32년,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평균은 약 3.61점으로 나타났다. 학교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를 살펴보면 학교 소재지의 약 84%가 도시이며, 평균 학급 규모는 26.66명이다. 또 학교의 기초수급자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1.95%이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학교의 비율은 약 11%로 나타났다. 교사특성에서 먼저 교사의 교직경력에 대한 학교 평균은 약 12.57년, 교사 열의는 약 4.07점, 교사 효능감은 약 4.24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교사와의 협력정도에서 교사들의 학교 평균은 약 2.52점, 수업개선 활동은 학교 평균적으로 2.52점으로 약 연간 1.52회 정도 참여한 정도이다. 그리고 교사의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정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학교 평균이 약 3.99점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의 특성 중 성별에서 남교장의 비율이 약 81%이며, 변혁적 리더십의 정도는 약 4.80점이었다.

6학년 시기의 학업탄력성 유지 여부에 따라 두 집단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한 결과, 학업탄력성 유지에 해당되는 집단에서 학생의 학습특성에서 수업이해도, 독서활동, 교육포부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한편 학업탄력성 유지에 미해당되는 집단에서 개인특성 중 여가 시간과 비행빈도 등의 평균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

## 2. 초등학교 6학년 시기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

[표 4-13]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업탄력성이 유지되게 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이다. 먼저, 학생변수를 투입한 모형1은 모형의 유의성 측면에서 카이제곱 19.00( $p < 0.05$ )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변수가 투입된 모형1에 추가적으로 학교, 교사, 학교장 등의 학교변수를 투입한 모형2의 적합도는 카이제곱 31.91( $p < 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초4-초6 시기 학업탄력성 유지 요인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1 (학생변수)			모형2 (모형1+학교변수 투입)		
		계수	표준 오차	exp(b)	계수	표준 오차	exp(b)
<b>학생변수</b>							
개인 특성	남학생	-0.188	0.373	0.829	-0.640	0.470	0.527
	SES 지수	-0.066	0.408	0.936	-0.659	0.840	0.518
	로그 여가시간 (친구)	-0.130**	0.054	0.878	-0.138**	0.064	0.871
	자아개념 (관계지향)	-0.276	0.270	0.759	-0.492	0.323	0.612
	로그 비행빈도	-0.471**	0.188	0.624	-0.605**	0.248	0.546
학습 특성	수업이해도	0.746**	0.360	2.108	1.233***	0.459	3.431
	독서활동	-0.493	0.330	0.611	-0.643	0.401	0.526
	교육포부	0.033	0.041	1.033	0.011	0.048	1.011
	학교만족도	-0.054	0.286	0.947	0.150	0.347	1.161
<b>학교변수</b>							
학교 특성	지역 규모				0.242	0.634	1.273
	학급 규모				-0.153	0.094	0.858
	기초수급자 비율				-0.027	0.103	0.974
	교복우 사업				0.290	0.924	1.337
교사 특성	교직경력				-0.036	0.082	0.964
	교사 열의				-0.535	0.725	0.586
	교사 효능감				3.649*	1.896	38.432
	동료교사 협력				-0.319	0.392	0.727
	수업개선활동				-0.041	0.621	0.960
학교장	수업방법 (학습자 중심)				-1.245	1.353	0.288
	남교장				0.551	0.665	1.735
	변혁적 리더십				-0.659	1.063	0.518
cons		-0.236			-1.212		
Pseudo- $R^2$		0.0910			0.1728		

-2LL	94.89392	76.409933
Chi-square	19.00**	31.91*
사례수	156	138

\* p<.1; \*\* p<.05; \*\*\* p<.01

[표 4-13]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 중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도 학업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형1에서 학생 개인특성 중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여가 시간, 비행빈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특성에서는 수업이해도가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서 유의한 영향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여가 시간이 1 증가하면 학업탄력성 유지 승산이 약 0.88 감소하며, 로그 비행빈도가 1 증가하면 학업탄력성 유지 승산이 약 0.6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수업이해도가 1 높아지면 학업탄력성 유지 승산은 약 2.11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2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1에서 학업탄력성 유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학생 개인특성인 여가 시간, 비행빈도가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습특성에서 학생 수업이해도 또한 모형1과 마찬가지로 모형2에서도 학업탄력성 유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2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된 학교변수 중 교사특성에서 교사 효능감이 학업탄력성 유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개인특성에서 방과후 친구와의 여가 시간이 증가할수록, 비행빈도가 증가할수록 학업탄력성 유지 승산이 감소하므로, 학업탄력성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학생 학습특성으로 수업이해도는 학업탄력성 유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특성 중 교사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학업탄력성 유지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5 장 논의

본 연구 목적은 3개년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여부에 영향을 주는 학생 및 학교 수준의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학업탄력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학업탄력성을 가진 학생의 규모를 3개년에 걸쳐 확인하고, 학업탄력성 여부에 따라 학생을 여러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탄력성 여부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탄력성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우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탄력성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이 새롭게 생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업탄력성 생성요인을 학생과 학교변수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탄력성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업탄력성 유지요인을 학생과 학교 변수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 제 1 절 초등학생의 교육격차와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

먼저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지수와 학생 학업성취를 각각 1분위-4분위로 구분하여 본 결과, 사회경제적배경 지수에 따라 학업성취에서의 격차가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2014년의 3개년에 걸쳐, 사회경제적배경 지수가 가장 낮은 SES 지수 1분위에 속하면서 학업성취가

가장 낮은 학업성취 1분위 집단에 속하는 학생 규모가 제일 컸다. 구체적으로 3개년에 걸쳐 약 300명 내외의 수준으로, 전체 학생 중 적게는 289명(10.38%)에서 많게는 321명(11.53%)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반면 SES 지수가 높은 4분위인 동시에 학업성취가 높은 4분위의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그 규모는 앞서 설명한 집단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수치적으로 적을 때에는 266명(9.55%)에서 많을 때에는 286명(10.27%)에 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경제적배경 지수에 따른 학업성취 양상에 대한 결과는 가정배경이 좋을수록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는 학생의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추론하여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로, 류방란, 김성식(2007)은 학생의 사회경제적배경 수준별 10분위로 구분하고 학생의 수학 성적 평균을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배경이 낮을수록 수학 성적 평균이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백병부(2012)는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이 학생의 국어와 영어 성적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여러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는 가정배경으로 인한 학생 간 교육격차의 발생을 시사한다(성기선, 2010; 양귀순, 2017; 이승진, 김경근, 2015; 이유정, 오성배, 2016; 임혜정, 진하람, 2016; 현지영, 김경근, 2015).

초등학교에서의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들의 수는 2012년-2013년 2개년에 걸쳐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2007년-2013년 사이 최근으로 올수록 중학교급에서 학업탄력적인 학생 비율이 감소하였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박현정, 이진실, 석유미, 2016; OECD, 2016).

한편 유형별 학업탄력성에서 성별과 주요 교과목에 따라 학업탄력적 학생의 수와 비율을 파악하여 본 결과, 성별과 교과목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 먼저 성별의 측면에서 학업탄력적 학생 중 2012년-2014년에 걸쳐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학생 성별에 따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박현정, 이진실, 석유미(2016)는 중학교의 학교별학유형에 따른 학업탄력적 집단의 비율이 남녀공학보다는 남녀별학교에서, 남녀별학 중에서도 남학교보다 여학교에서 학업탄력적 학생 비율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면서,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학업탄력적 학생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교과목에 따른 측면에서는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는 학업탄력적인 여학생의 수와 비율이, 수학 교과에서는 학업탄력적 남학생의 수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 성별에 따라 주요 교과에서의 학업성취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순주(2012)는 초등학교 수학의 학업성적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여학생이 우위를 나타내다가 4학년과 5학년이 되면서 그 현상이 약화되었다고 하였다.

## 제 2 절 초등학생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특성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학업탄력성이 없었던 학생 중 6학년이 되어 새롭게 학업탄력성이 생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특성에서는 SES 지수, 자아개념(관계지향), 수업이해도, 독서활동, 교육포부 등이 있었으며, 학교특성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개인특성에서 SES 지수, 자아개념(관계지향)과 관련하여 학생의 가정배경과 학업성취는 일반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성식, 2008; 성기선, 2010). 본 연구에서는 SES 지수가 학업탄력성 생성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관하여 가정배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자아개념(관계지향)과 관련하여서는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가

수업참여에 작용함을 주장한 바 있는데, 저성취 학생이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지향하는 관계형 학생은 학교를 친구와 교사를 만나는 곳이라고 인식하여, 수업내용보다는 친구와의 이야기를 나누는 데 집중한다고 하였다(김경애, 류방란, 2018). 따라서 학생의 관계지향적인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수업시간에 학습보다는 친구와의 관계에 관심을 둬으로써 학업탄력성 생성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하여볼 수 있다.

학생의 학습특성에서는 수업이해도, 독서활동, 교육포부가 학업탄력성 생성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독서활동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소연희(2008)는 독서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국어과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직·간접적으로 국어과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독서토론회 등의 활동을 활용하는 등의 독서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의 독서활동이 학업탄력적 학생 생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인지 혹은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준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의 교육포부가 학업탄력성 생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윤경, 송주연(2018)은 학업성취가 학생의 교육포부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교육포부와 학업탄력성에 대한 인과관계 혹은 역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특성에서 학업탄력성 생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학교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우선지원학생들이 교사의 관심을 더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비사업학교의 비슷한 조건 학생들에 비하여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 불안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연결지어 해석하여볼 수 있다(류방란, 김준엽, 송혜정, 김진경, 2013). 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학

업탄력성이 없던 학생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업탄력성 생성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 제 3 절 초등학생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특성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 중 6학년 시기에 학업탄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특성에서 개인특성으로 학생의 여가 시간과 비행빈도, 학습특성으로 수업이해도가 있었으며, 학교특성에서는 교사특성 중 교사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여가 시간과 관련하여 정예화, 정제영(2017)은 초등학생의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국어·수학·영어 성적 평균,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친구와의 여가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생의 학업탄력성 유지 확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 학생이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여가 시간은 학업성취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의 비행빈도와 관련하여, 안전한 학교풍토가 학업탄력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와 연결지어볼 수 있다. 박현정, 이진실, 석유미(2016)는 해당 학교에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빈도가 학생이 학업탄력성 집단에 속할 확률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학생의 비행빈도가 적을수록 학업탄력성 유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학업탄력적 학생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볼 수 있다.

교사효능감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수업참여, 수업흥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순구, 2018). 본 연구에서도 교사효능감은 학업탄력적 학생 유지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제 4 절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생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생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학생특성 중 학습특성으로 수업이해도가 있었다. 수업이해도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양분, 신혜진, 강호수(2016)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도 변화와 관련된 요인 탐색에서, 수업이해도가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서 수업이해도가 학업성취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도 수업이해도가 학업탄력성의 생성과 유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로 해석하여 볼 수 있다. 덧붙여, 학생의 수업이해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학습동기, 학생과 교사 관계, 학습 인지전략, 성취 목표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김경연, 심현애, 2009; 백성혜, 김혜경, 채우기, 권균, 노태희, 1999; 양수민, 이귀숙, 2012; Gregory & Weinstein, 2004). 따라서 학생의 수업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수업이해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요인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특성의 측면에서 학업탄력성 생성과 유지에 대한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새롭게 생성시키는 데 유의한 것으로 드러난 요인은 학생특성에서 SES 지수, 자아개념(관계지향), 독서활동, 교육포부 등인 반면, 학업탄력성을 유지시키는 요인에는 학생특성 중 여가 시간



(친구), 비행빈도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나타난 영향 요인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해석함에 있어, 각 집단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학업탄력성 여부의 차이가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저성취 학생과 고성취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과 관련지어 파악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박현린, 김누리, 2015).

그리고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에 있어 학업탄력성 생성과 유지에 대한 요인이 차이를 보였다.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주는 학교특성으로는 교육복지우선사업 운영여부가 유의하였다. 한편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주는 학교특성으로는 교사효능감이 유의하였다. 류방란 외(2013)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높여, 학생의 자존감과 우울 불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해당 사업이 학업탄력성 생성 집단에서만 나타난 까닭을 이같은 정서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학업탄력성 유지 집단은 이미 학습성취가 높은 학생들로, 자존감이 높을 가능성이 큰 반면, 학업탄력성 생성 집단은 4학년 시기 학업성취가 낮았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았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고, 학업탄력성의 생성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중단연구(GEPS) 1차년도(2012년)의 85개교 초등학생 2785명과 교사 452명과 학교장 8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탄력성 여부에 따라 학생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업탄력성 생성 요인과 학업탄력성 유지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업탄력성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분석 모형으로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에서 2014년이 되는 동안 학업탄력적인 학생은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을 주요 교과목인 국어·수학·영어 과목별과 학생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는 학업탄력적인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수학 교과에서는 학업탄력적인 학생 중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러한 양상은 3개년에 걸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둘째, 초등학생 학업탄력성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으로는 SES 지수, 자아개념(관계지향), 수업이해도, 독서활동, 교육포부 등이, 학교특성으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 여부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 학업탄력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으로 학생의 여가 시간(친구), 비행빈도, 수업이해도 등이, 학교특성으로는 교사 효능감 등이 영향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고착화되어오고 있으며, 학업탄력적

학생 수와 비율이 감소하였고, 교과목과 학생 성별에 따라 그 양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교급에서 학업탄력적 학생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가정배경 지수와 학업성취도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해가 지남에 따라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배경이 열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도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는 학업탄력적 여학생이, 수학 교과에서는 학업탄력적 남학생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여, 각 교과 지도에 있어 학생 성별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령 국어 교과를 지도할 때 교사가 남학생에 대한 피드백 빈도를 높인다거나, 수학 교과에서는 여학생의 이해도를 반복 점검하는 교수학습방법 등의 필요성이다.

둘째, 학업탄력성 생성 영향 요인으로 밝혀진 특성 중 학교에서의 독서활동 활성화에 대한 환경 조성, 학생의 수업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사의 노력 향상 및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의 확대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독서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가령 학교에서 독서활동을 학교 특색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교사수준에서 학급내 독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학급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학생의 수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볼 수 있다(박혜숙, 2012; 이은하, 최은정, 2015).

셋째,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학생의 바람직한 여가 시간 선용 방법의 안내 및 지도, 학생의 비행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생활지도 및 교과연계 수업 강화, 수업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사 및 학교의 노력, 교사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 전문성 향상 관련 연수 확대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내지는 분석 기간을 확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6학

년이 되는 2014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하였다. 먼저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양상과 그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개 학년으로 분석대상이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그 대상을 넓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분석 기간이 2012년-2014년의 3개년으로 한정되었는데, 종단데이터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학생이 2014년 이후에는 학업탄력성 여부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기간을 확장하여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방법적 측면에서의 다양화 및 엄밀화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업탄력성 여부에 대한 확률을 분석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생의 학업탄력성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수로 6학년 시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초등학교 5학년 시기 학업탄력성 변화는 고려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다음 해에 5학년이 되는 과정, 5학년 학생이 6학년이 되는 과정 등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년 상승에 따른 학업탄력성 변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을 활용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초등학교 이외의 학교급 및 경기 외 지역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경기도 소재지의 초등학교 학생이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등의 학교급에서의 학생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경기 이외 지역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이에 전국적인 데이터와 다양한 학교급의 자료를 중심으로 학생의 학업탄력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넷째, 초등교육의 목표에 비추어볼 때, 초등학생 대상의 전인적 발달 관련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탄력성의 개념이 개인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탄력성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는 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전인적 발달의 의미는 아동들로 하여금 전통적 교과교육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점(Haigh, 1975)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탄력성의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국 초등교육 목표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교육부, 2015)’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 즉 지식·정서·신체적 측면의 통합적 발달에 고루 주목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강영혜, 김양분, 류한구, 김재철, 강태중. (2004).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곽현석. (2018). 초등학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3), 369-388.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계획.
-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구경호, 김석우. (2014).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탄력성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69-89.
- 구경호, 유순화. (2014). 청소년이 지각한 학습동기와 학업탄력성의 관계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27-47.
- 권순구. (2018). 교사-학생관계 교사효능감과 초등학생의 수업참여, 흥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24(1), 31-56.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근, 연보라, 장희원. (2014).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영향요인 및 그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24(4), 1-29.
- 김경년, 박정신. (2014). 교육복지 학교 지정이 학교 간 재정의 수직적 형평성 및 학력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 회귀불연속 설계를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3), 1-26.
- 김경연, 심현애. (2009). 고등학생이 설정한 성취목표 유형이 인지전략 사용과 지각된 수업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중등교육연구**, 57(3), 237-264.
- 김경애, 류방란. (2018). 중학생의 수업 참여 양상: A중학교 학생들 사례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6(3), 719-749.
- 김누리. (2008). 학업탄력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안. (2014). 프로야구 선수의 탄력성 연구: 역경 극복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식. (2008). 학생 배경에 따른 대학진학 기회의 차이 : 성별, 가정배경, 지역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2), 27-47.
- 김양분, 신혜진, 강호수. (2016). 초등학교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도 변화 관련 변인 비교 분석. **한국교육**, 43(2), 33-66.
- 김양분, 이재경, 임현정, 신혜숙. (2010). 학력격차의 변화 추이 및 해소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 (2003).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위정. (2012). 계층간 학력 격차의 변화: 학교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 49-76.
- 김홍희, 한기순. (2015). 영재 청소년의 학업소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여향에서 학업탄력성의 매개 및 조절 효과. **영재교육연구**, 25(3), 421-437.
- 노지숙, 여상인. (2016).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27(3), 207-221.
- 류방란, 김성식. (2007). 계층간 교육격차의 양상. **교육비평**, (22), 52-66.
- 류방란, 김준엽, 송혜정, 김진경. (2013). 자존감 향상, 우울 불안 감소에 미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4(3), 59-83.
- 박분희, 김누리. (2010). 아동용 학업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19(4), 19-32.
- 박주형. (2011). 학력부진학교 개선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정책과 책무성 확보방안. **비교교육연구**, 21(2), 1-22.
- 박진영, 김누리. (2009). 성인대학생용 학업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3(3), 215-239.
- 박현린, 김누리. (2015). 학교와 가정의 사회 심리적 환경 변인이 저성취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24(2), 39-52.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정, 이진실. (2015).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들의 고교 및 대학생활 특성 분석. **교육평가연구**, 28(2), 289-311.
- 박현정, 이진실, 석유미. (2016). 중학교에서의 학업탄력성 추이 분석 및 학교수준에서의 영향요인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17(4), 193-213.
- 박현정, 정동욱, 이진실, 박민호, 조성경. (2013). 서울시 초·중등교육의 교육격차 구조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4), 149-174.
- 박혜숙. (2012). 수학교과 사교육경험패턴, 성별, 자율학습시간과 수업이해도 변화탐색. **교육심리연구**, 26(3), 695-716.
- 백병부. (2012).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와 수행평가의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22(3), 111-131.
- 백성혜, 김혜경, 채우기, 권균, 노태희. (1999).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고려한 개념변화 수업 모형의 효과 분석. **청람과학교육연구논총**, 9(1), 245-254.
- 변수용, 김경근. (2010). 한국사회 고등교육 계층화의 영향요인 분석: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1), 73-102.
- 성기선. (2010).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력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중학생 1988년과 2007년 비교-. **교육사회학연구**, 20(3), 83-103.
- 소연희. (2008). 독서흥미, 독서활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이 국어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0(2), 75-90.
- 양귀순. (2017). 초등학교 시기 가정배경이 자존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343-362.
- 양수민, 이귀숙. (2012). 중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른 유능감, 또래지지, 학습몰입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9(8), 241-264.
- 오욱환. (2008). 교육격차의 원인에 대한 직시: 학교를 넘어서 가족과 사회로. **교육사회학연구**, 18(3), 111-133.



- 오현경. (2014). 청소년 학업탄력성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5(6), 2535-2555.
- 오현경, 김성희. (2012). 청소년 학업탄력성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1), 47-63.
- 우명숙. (2013). 서울시 중학교의 단위학교 및 자치구 수준에서의 교육격차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2(4), 55-83.
- 이명숙. (2016). 초등학생용 학업적 탄력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 이상준. (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과 학업적 탄력성. **청소년학연구**, 13(1), 137-163.
- 이순주. (2012). 초등학교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성별 거주지역별 차이. **C-초등수학교육**, 15(3), 177-187.
- 이승진, 김경근. (2015). 가정배경, 양육태도, 교우관계, 오락적 휴대전화 이용행태와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21(2), 41-66.
- 이유정, 오성배. (2016).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4(1), 93-114.
- 이은하, 최은정. (2015). 정의적 특성과 국어 학업성취도의 종단 관계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0(2), 270-307.
- 이혜영, 강태중. (2004).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학교와 타 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혜정, 전하람. (2016). 가정의 교육적 지원이 수학 학습부진 학생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분석: 어머니 학력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6. 9. 24), 29-53. 한국교육사회학회
- 전인경. (2009). 탄력성의 국내연구동향 : 탄력성의 영향을 받는 변인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호. (2013). STATA를 활용한 사회과학 통계. (주)박영사
- 정숙희, 이은수. (2015). 대학생의 적응적 완벽주의, 학업탄력성 및 자기

- 조절학습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8), 83-103.
- 정예화, 정제영. (2017).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5(2), 1-20.
- 정윤경, 송주연. (2018).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시험불안, 교육포부에 대한 학업성취의 역할: 성장신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5(6), 321-348.
- 정철영, 정진화, 오창환. (2011). 도·농간 교육격차에 관한 가정 및 학교 배경 효과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3(1), 27-49.
- 하봉운. (2004). 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논단**, 6(4), 61-90.
- 허은정, 신철균, 정지선. (2012).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격차 실태 및 특성 분석. **열린교육연구**, 20(1), 141-164.
- 현지영, 김경근. (2015). 가정배경,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자본,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15. 4. 24)**, 91-121, 한국교육사회학회
-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 Alva, S. A. (1991). Academic invulnerability among Mexican-American students: The importance of protective resources and appraisal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3, 18-34.
- Borman, G. F., & Overman, L. T. (2004). Academic Resilience in Mathematics among Poor and Minority Students. *Elementary School Journal*, 104(3), 177-195.
- Carnoy, M. et al. (2005). The Charter School Dust-up. Examining the Evidence on Enrollment and Achievement. Washington DC: Economic Policy Institute.
- Catterall, J. S. (1998). Risk and resilience in student transitions to high school.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06, 302-333.
- Finn, J. D., & Rock, D. A. (1997). Academic success among students

- at risk for school failur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28*, 221-234.
- Gizir, C. A., & Aydin, G. (2009). Protectiv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academic resilience of students living in poverty in Turkey.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3*(1), 38-49.
- Gonzalez, R., & Padilla, A. M. (1997). The Academic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9*(3), 301-318.
- Gregory, Anne & Weinstein, Rhona S. (2004). Connection and Regulation at Home and in School: Predicting Growth in Achievement for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4), 405-427.
- Haigh, G. (1975). Integrative. London: Trowbridge, & Esher.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Martin, A. J. (2002). Motivation and academic resilience: Developing a model for student enhancement.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46*(1), 34-49.
- Martin, Andrew. (2003). The Student Motivation Scale: Further testing of an instrument that measures school students' motivation.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47*(1), 88-106.
- Martin, Andrew J. & Marsh, Herbert W. (2009). Academic resilience and academic buoyancy: multidimensional and hierarchical conceptual framing of causes, correlates and cognate constructs. *Oxford Review of Education, 35*(3), 353-370.
- Masten, Ann. S., & Coatsworth, J. Douglas.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The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 McTigue, E., Washburn, E., & Liew, J. (2009). Academic Resilience and Reading: Building Successful Readers. *The Reading Teacher, 62*(5), 422-432.
- Nota, L., Soresi, S., & Zimmerman, B. (2005). Self-regul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resilience: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41*(3), 198-215.
- OECD. (2010). PISA 2009 results: Overcoming social background - equity in learning opportunities and outcomes- (Volume II). OECD Publishing.
- OECD. (2011). Against the odds: Disadvantaged students who succeed in school. OECD Publishing.
- OECD. (2013). PISA 2012 results: Excellence through equity - giving every student the chance to succeed (Volume II). OECD Publishing.
- OECD. (2016). PISA 2015 results: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Volume I). Paris: OECD Publishing.
- Philips, M. et al. (1998). Family background, parenting practices, and the black-white test score gap. In Jencks, C. & Philips, M. (eds.) *The Black-White Test Score Gap*, 103-148.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Rothstein, R. (2004). *Class and Schools: Using Social, Economic and Educational Reform to Close the Black-White Achievement Gap*. New York: Teachers College.
- Waxman, H. C., Huang, S. L., & Padrón, U. N. (1997). Motivation and learning environment differences between resilient and non-resilient Latino middle school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9*(2), 137-155.
- Wayman, J. C. (2002). The utility of educational resilience for studying degree attainment in school dropou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5(3), 167-178.

Zimmerman, B. J. (2003). Understanding resilient learners: Self-regulatory sources perceived academic efficacy. An address presented at the 19th annual learning differences conference. Harvard Graduate School, Cambridge, MA, November.

<신문기사>

이현우(2018.02.05.). 학교성적도 '재산순'...급격히 사라지는 '학업탄력성'.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05104634118>  
49에서 18.05.31. 인출.

## 부 록

[부록-1] 전체 초등학생 학업탄력성 생성에 대한 영향 요인 기술통계

	변수명	N	Mean	S.D.	Min	Max
개인 특성	남학생	420	0.56	0.50	0	1
	SES 지수	420	-0.89	0.26	-2.16	-0.62
	여가 시간 (친구)	418	78.48	76.71	0	300
	자아개념 (관계지향)	420	3.94	0.82	1	5
	비행빈도	420	12.14	18.63	0	160.70
학습 특성	수업이해도	420	3.80	0.87	1	5
	독서활동	420	2.80	0.71	1	4.56
	교육포부	416	12.31	5.06	6	21
	학교만족도	418	3.62	0.69	1	5
학교 특성	지역 규모	420	0.67	0.47	0	1
	학급 규모	420	25.35	4.53	9.17	35.62
	기초수급자 비율	398	2.31	2.92	0	17.89
	교복우사업	398	0.17	0.37	0	1
	교직경력	420	11.99	3.75	2.50	20.83
교사 특성	교사 열의	420	4.15	0.46	3	5
	교사 효능감	420	4.29	0.26	3.44	4.80
	동료교사 협력	420	2.49	0.75	1.50	4.47
	수업개선 활동	420	2.65	0.64	1	4.83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420	4.07	0.36	3.11	4.78
학교장	남교장	420	0.79	0.41	0	1
	변혁적 리더십	420	4.80	0.24	3.92	5

[부록-2] 전체 초등학생 학업탄력성 유지에 대한 영향 요인 기술통계

변수명		N	Mean	S.D.	Min	Max
개인 특성	남학생	159	0.43	0.50	0	1
	SES 지수	159	-0.91	0.45	-5.66	-0.62
	여가 시간 (친구)	159	60.94	62.98	0	300
	자아개념 (관계지향)	158	4.15	0.72	1.20	5
	비행빈도	159	8.26	13.08	0	92.88
학습 특성	수업이해도	159	4.57	0.54	2.33	5
	독서활동	158	3.12	0.66	1.44	5
	교육포부	158	14.58	4.72	6	21
	학교만족도	159	3.60	0.62	2	5
학교 특성	지역 규모	159	0.79	0.41	0	1
	학급 규모	159	26.20	3.61	10.67	35.62
	기초수급자 비율	152	2.09	2.31	0	17.89
	교복우사업	147	0.14	0.35	0	1
교사 특성	교직경력	159	12.32	3.66	2.50	20.83
	교사 열의	159	4.07	0.44	3.06	4.89
	교사 효능감	159	4.26	0.26	3.44	4.71
	동료교사 협력	159	2.45	0.67	1.50	4.47
	수업개선 활동	159	2.56	0.50	1.75	4.83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159	4.01	0.33	3.11	4.78
	남교장 변혁적 리더십	159	0.82	0.39	0	1
학교장	159	4.81	0.26	3.92	5	

## Abstract

# An analysis on the a trend of academically resilient students and factors affecting academic resilience in elementary school

Kim, Jieu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concept of academic resilience emerged in an effort to reduce the educational gap as the problem of the gap between classes surfaced, which is defined as the achievement of high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by students in difficult family settings. As it is raised at home and abroad that the percentage of students with academic resilience has dropped sharply,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gap between classes will widen and inequality in education opportunities will deepen. In this situation, the study aims to identify specific aspects of the change by figuring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students with academic resilience at elementary schools, and to



analyse factors that affect generating and maintaining academic resilience as the school year increases. Based on this, policy suggestions 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with academic resilience can be nurtured are suggested.

To analyze this research,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follows. First, how is the change in academic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the school year increases? Second,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generation of academic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rd,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maintenance of academic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is research, GEPS data is used and analys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binomial logistic models. First of all,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specifically examined the size of students with academic resilience for the sam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2012 to 2014 divided by gender, and major school subjects. Next, student characteristics and schoo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generation of academic resilience in the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do not have academic resilience in 4th grade is analyzed by using the binomial logistic model. Also, through the binomial logistic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nd schools were analysed that have an effect on maintaining the academic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eniors even in the 6th grad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om 2012 to 2014, academically resilient students showed a general decline. According to this study, the number and ratio of students with academic resilience by gender and major subjects, in Korean and English, the ratio of female students with academic resilience was high. In contrast, in math, male students accounted for a high percentage of students with academic resilience, and this pattern was

similar over three years. Seco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generation of academic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the SES index, relation orientated self-conception, understanding of class, reading activity, education aspira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Third, characteristics of student and school that affect the maintenance of academic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clude leisure time(friends), delinquency frequency, understanding of class, and effectiveness of teachers.

Based on the main findings, there are policy suggestions and research suggestions. First, the educational gap in the background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become stifled,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students with academic resilience has decreased, and the pattern has been different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gender.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for a policy on the formation of an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increase the number of students with academic resilience in elementary schools. Second, among the characteristics that have been found to have an impact on the generation of academic resilience, the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 for revitalizing reading activities in schools, improvement of teachers' efforts to improve students' understanding in class, improvement of teaching methods, and expansion of the operation of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s are needed. Third, to maintain the academic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is needed to suggest the guidances of spending desirable leisure time for students, reinforce student guidance and classroom instruction to reduce the frequency of delinquency, make efforts by teachers and schools to improve the quality of classes, and expand the training related to teacher professional improvemen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eachers.

keywords : academic resilience, factors of academic resilience,  
elementary school, achievement, socioeconomic status,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tudent Number* : 2017-20054